

MYANMAR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북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CONTENTS

요 약 문	9
-------	---

제1장 서 론	13
---------	----

Ⅰ. 발간 배경 및 목적	15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16
Ⅲ. 국가개황	17

제2장 환경 현황	37
-----------	----

Ⅰ. 개 요	39
Ⅱ. 물	40
1. 현황 및 관리실태	40
2. 시장현황 및 분석 등	45
Ⅲ. 대기	48
1. 현황 및 관리실태	48
2. 관련 이슈	50
Ⅳ. 폐기물	52
1. 현황 및 관리실태	52
2. 시장분석 및 최근 이슈	63
Ⅴ. 기타 환경	67
1. 전력에너지	67
2. 재생에너지	72
3. 기후변화	72
4. 시장현황 및 분석	73

제3장 환경기관, 법, 정책 77

- I. 환경기관 79
 - 1. 정부 기관 79
 - 2. 유관기관 88
 - 3. 기타 진출기업 90
- II. 주요 환경법 및 정책 91
 - 1. 주요 환경법 91
 - 2. 환경 관련 주요정책 95

제4장 진출환경 및 전략 99

- I. 진출환경 및 사례 101
 - 1. 진출환경 101
 - 2. 주요 공여기관 활동 현황 114
 - 3. 국내·외 진출사례 115
- II. 진출전략 수립 125
 - 1. SWOT 종합분석 125
 - 2. 진출수요 및 전망 132
 - 3. 종합 진출전략 134
- III. 결론 139

참고문헌 및 부록 141

- I. 참고문헌 143
- II. 부록(비즈니스 유의사항) 144
- III. 미얀마 컨택포인트 종합 147

LIST OF TABLE

제1장 서론

13

[표 1-1] 국가정보	17
[표 1-2]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18
[표 1-3] 신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비전과 목표 및 12대 발전과제	20
[표 1-4] 미얀마 금융 동향	21
[표 1-5]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22
[표 1-6] NLD 신정부의 산업육성 정책방향	24
[표 1-7] 미얀마 10대 수출대상국	27
[표 1-8] 미얀마 10대 수입대상국	27
[표 1-9] 연도별 미얀마 투자유치액	28
[표 1-10] 미얀마 신투자법 주요 변경 내용	30
[표 1-11] 對미얀마 10대 수출품목	31
[표 1-12] 對미얀마 10대 수입품목	32
[표 1-13] 미얀마 주요 인사	33
[표 1-14]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SDP)	34

제2장 환경 현황

37

[표 2-1] 양곤시 송수관로 현황	45
[표 2-2] 양곤시 급수관로 현황	46
[표 2-3] 양곤시 2011년 폐기물 수거 현황	54
[표 2-4] 2017년 미얀마 폐기물 처리 유형	56
[표 2-5] 만달레이시 폐기물관리 목표	57
[표 2-6] 양곤시 최종처분 매립장 현황	61
[표 2-7] 폐기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62
[표 2-8] 양곤시, 만달레이시 폐기물 월 수거료(2017)	63
[표 2-9] 폐기물 관리시스템 관련 문제점	63
[표 2-10] ISWM 시설 구성요소 및 비용 분석	64

제3장 환경기관, 법, 정책	77
[표 3-1] NSDS 목표	94
[표 3-2] 양곤시 환경 관련 법	94
[표 3-3] 네피도시 환경 관련 법	95
[표 3-4] 만달레이시 환경 관련 법	95
제4장 진출환경 및 전략	99
[표 4-1] 상공부 공고상 도소매규제 정리	102
[표 4-2] 합작이 강제되는 사업(MIC 공고 15/2017)	104
[표 4-3] 외국 법인의 설립 절차와 단계별 필요서류	107
[표 4-4] 미얀마 지사/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단계별 필요서류	108
[표 4-5] 미얀마 법인의 설립 절차와 단계별 필요서류	110
[표 4-6] 한-미얀마 산업단지 입찰 예상 시기	119
[표 4-7] 환경시장 SWOT 분석	125
[표 4-8] 미얀마 GDP 변화(2017-2024)	132
[표 4-9] 한국 GDP 변화(1980-1987)	132
[표 4-10] 환경산업의 발전 단계별 특성	134
참고문헌 및 부록	141

LIST OF FIGURE

제1장 서론	13
[그림 1-1] 미얀마 지도 및 국기	17
제2장 환경 현황	37
[그림 2-1] 만달레이 폐수 샘플링 측정 데이터	42
[그림 2-2] YCDC 폐수관리 부서 조직도	43
[그림 2-3] MCDC 폐수관리 부서 조직도	43
[그림 2-4] 미얀마 수질오염	44
[그림 2-5] 미얀마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현황	48
[그림 2-6] 미얀마 자동차 등록 현황	49
[그림 2-7] 양곤시 폐기물 발생량	53
[그림 2-8] 만달레이시 고품폐기물 수집방법	54
[그림 2-9] 양곤시와 네피도의 폐기물 조성	55
[그림 2-10] 폐기물 방문 수거 시스템	56
[그림 2-11] 만달레이 최종 매립장에서 작업 중인 념마주이	56
[그림 2-12] 흘라잉따야 매립장 화재	58
[그림 2-13] 봉투 색상 분류를 통해 관리하는 의료폐기물	60
[그림 2-14] 의료폐기물 수거 트럭	60
[그림 2-15] 만달레이시 Kyar Ni Kan 처리장 전경	62
제3장 환경기관, 법, 정책	77
[그림 3-1] 자연환경부 조직도	79
[그림 3-2] 환경청 조직도	81
[그림 3-3] YCDC 조직도	83
[그림 3-4] NPTDC 조직도	84
[그림 3-5] MCDC 조직도	85
[그림 3-6]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조직도	86
[그림 3-7] 국가수자원위원회 조직도	87
[그림 3-8] 프로젝트 분류(EIA, IEE, EMP)	93

[그림 4-1] 회사설립 절차도	107
[그림 4-2] 미얀마 노동시위 현장	113
[그림 4-3] 양곤 사무실 임대료	128
[그림 4-4] 양곤 상가 임대료	129
[그림 4-5] 한국-미얀마 GDP 비교(1980-2020)	132
[그림 4-6] 미얀마 Project Bank 내 프로젝트 목록	135
[그림 4-7] 진출전략 수립	136

요약문



미얀마

가. 국가개황

- (정치환경) 2016년도 신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
- (경제현황)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발수요 및 투자는 급증하였지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
- (한-미얀마 교역량)
 - 한국의 대(對) 미얀마 수출품 1위 직물, 2위 산업기계
 - 한국의 대(對) 미얀마 수입품 1위 섬유제품, 2위 농산물

나. 환경시장 시사점

- (장점) 경제특구(SEZ) 개발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착공에 따라 기초 환경 인프라 시설 등을 통한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단점) 환경정책 및 규제는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마련되어 있으나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환경산업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기업진출 시,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한 진출전략 마련 필요

다. 환경시장 진출전략

-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지원과제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진출 장려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향후 5년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
-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한 진출
 - 미얀마 정부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전력보급, 도로 건설 등)를 PPP로 시행하고 해당 프로젝트들을 'Project Bank'에 등록하여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PPP 활성화 예상
- 정부 기관 및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환경 중앙부처인 자연환경부(MONREC)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긴밀한 관계유지 필요

라. 환경산업 유망분야

- (대기) 대기오염 현황 및 시장현황 등 자료 파악 자체가 되고 있지 않으며 타 분야 대비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아직은 시장형성이 어려운 분야로 예상
- (수질)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 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처리되지 않은 물의 무단 방류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와 산업체 모두 폐수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임
 - 일부 로컬 업체가 폐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폐수에 특화된 회사가 거의 없어 국내 산업폐수처리 전문기업 진출 유망
 - 현재 양곤시에서 활용 가능한 저수지는 급수구역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로, 급수구역 인근의 하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하거나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하천의 염분농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공법 등의 수요 예상
- (폐기물)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 기술적 역량 부족으로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해당 분야를 통한 진출을 노릴 필요가 있음
 - 미얀마 환경 분야 중 가장 유망한 분야이므로, 폐기물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미얀마 폐기물 시장을 주시해야 함
-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

마. 우리나라 진출 사례

- (주)케이디파워
 - KOTRA 지원을 통하여 미얀마 농촌 불 밝히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3kW 발전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기증
- 포스코인터내셔널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라카인 주 정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파트너십으로 진행, 라카인 주 마나웅 섬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준공 및 기부하였으며, 이는 쉐가스전 사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수행됨

제1장 서론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국가개황

I 발간 배경 및 목적

- 환경부의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는 환경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국내 환경산업체에 소개하여 해외진출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미얀마는 인도·중국 등 대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5천만 명이 넘는 풍부한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 등 산업 환경의 전략적 요충지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임
- 50여 년간의 군부독재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으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낙후된 상태였으나, 민간정권으로 교체 이후 경제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이 활발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 대기,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산업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높은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환경규제 집행이 본격화되면 환경시장이 형성되고 환경투자에 따른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함
- 본 진출가이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미얀마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진출 준비에 실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환경 분야별 오염 현황, 환경시장 전망, 관련 정부 기관, 법제도, 정책 그리고 진출사례와 진출 시 참고사항 등을 최대한 상세히 소개함. 또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미얀마 진출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 향후 미얀마 환경시장 진출 시 본 진출가이드의 바탕 위에서 지역별, 분야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전략이 가능할 것임. 본 연구가 미얀마 환경시장 진출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램

II 연구 방법 및 범위

- 본 진출가이드 발간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위해 미얀마 국가기관(자연환경부, 도시개발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자료와 국내의 수출 관련 유관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의 발간자료를 조사함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환경산업 관련 자료, EBI, GWI 등의 전문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함
- 현지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얀마 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 관계자, KOTRA 무역관 등을 만나 인터뷰를 수행함
- 본 진출가이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장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서론에는 본 진출가이드의 발간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국가 개황을 요약함
 - 제2장 환경 현황 조사에서는 미얀마의 물 환경, 대기 환경, 폐기물관리, 재생 에너지 등 분야별 환경오염 및 관리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함
 - 제3장 환경 관련 조직, 법, 정책에서는 미얀마의 환경산업 정책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소개하고, 환경산업의 진출 시 검토해야 할 법제와 정책 등을 소개함
 - 제4장 진출사례와 진출 현황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미얀마 진출 현황 및 사례 정보와 진출환경과 관련한 노동, 조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등을 수록함
 - 제5장 환경시장 분석 및 진출전략 수립에서는 미얀마 환경시장 SWOT 분석과 환경산업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등을 소개함

Ⅲ 국가개황

1. 개요



자료: Google

그림 1-1 | 미얀마 지도 및 국기

표 1-1 | 국가정보

구 분	내 용
국 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수 도	네피도(Naypyidaw)
면 적	약 67만km ² (한반도의 약 3배, 남한의 약 6.7배)
인 구	약 5,395만명(2018년 통계청 기준)
기 후	열대성 몬순 기후
시 차	GMT+6:30(한국보다 2시간 30분 느림)
주요도시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G D P	715억 4,300만 달러(세계 71위, 2018 IMF 기준)
행정구역	7개 지역, 7개 주(지역 : 버마족, 주 : 소수민족 거주)
민 족	버마족(70%), 소수족(산, 카렌 등) 130여 종족(25%), 기타(5%)
언 어	미얀마어
종 교	불교 89%, 기독교 5%, 이슬람 4%, 힌두교 1%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 2018.3.30 윈민(Win Myint) 대통령 취임
정부성향	2010년 군사정권이 종식되었으나, 여전히 군부의 영향이 막강함

2. 경제현황

가. 시장전망

□ 성장률 둔화

-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발 수요 및 투자는 급증하였지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
 - 취약한 제조업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발생
 - 신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속해서 공공지출은 늘어나고 재정적자는 누적될 전망
-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 감소로 투자액은 하락하고 있음

□ 미얀마 수출 감소

- 2018년 5월 1,340짜트던 달러환율이 9월 1,650짜트로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미얀마 수입업자들은 짜트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짜트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량이 감소하여 한국기업의 미얀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나. 주요 경제지표

표 1-2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GDP	십억 달러	59.5	63.3	66.5	70.7	74.9
1인당 명목GDP	달러	1,148	1,210	1,263	1,338	1,414
실질 GDP 성장률	%	7.0	5.9	6.7	6.9	7.0
실업률	%	4	4	4	4	4
소비자물가상승률	%	10.0	7.0	6.9	5.4	5.8
재정수지(GDP대비)	%	-5.152	-3.91	-5.308	-5.436	-5.611
총수출	백만 달러	11,136.5	11,998.0	14,850.6	-	-
對韓수출	백만 달러	506	459	463	-	-
총수입	백만 달러	16,577.8	17,211.0	18,686.9	-	-
對韓수입	백만 달러	660	761	573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441.3	-5,212.5	-3,836.3	-	-
경상수지	백만 달러	-3.01	-2.475	-3.532	-3.844	-4.20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61/1	1,234/1	1,360/1	1,388/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0	94	66	57	-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다.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정치 환경

- 2011년 군사정권의 종식, 민간정권으로의 교체
 - 2008년 5월 국민투표로 개정된 신헌법에 따라 2010년 11월 총선거 실시
 - 2011년 4월 1일 군사정권이 종식하고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이끄는 미얀마 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란 명칭의 새로운 민간정부가 탄생
 - 기존 군정 통치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는 2011년 3월 30일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
- 2016년 NLD 신정부 출범
 -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지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of Democracy)가 승리하며 틴 쟈(Htin Kyaw)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 출범(2016.4.)
 - 틴 쟈 대통령은 민주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나, 건강문제로 사임하고(2018.3.), 윈민(Win Myint) 대통령 취임(2018.4.1.)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상황
 -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군부 정치가 남아 있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나라가 불안정함
 - 신정부는 정치·경제 분야에서 군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화해무드 유지
 - NLD의 수장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국가 고문 겸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으나, 사실상 친정체제를 통해 실권 행사
 - 정치개혁을 가속하여 2011년 10월 12일 6,359명의 투옥자 중 218명의 정치범을 전격 석방하였으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이를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첫 번째 단계'로 정의함
 - 정치범 석방은 서방세계에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서막임

□ 경제 환경

○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신정부는 국가경제조정위원회, 국영기업민영화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등을 설립하였으며, 무상원조·차관 유치를 통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식거래 개시 및 보험시장 개방 등 고도화 추진
- 군부 독점 국영기업의 불투명한 행태를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영화 추진
- 폐쇄적 경제정책을 대외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나, 제도적·법적 장애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잔재

○ 2016년 7월, 수지노믹스 발표

- 신정부는 ‘민족화합에 기반한 균형성장’을 목표로 12대 어젠다로 구성된 향후 5개년 경제정책(수지노믹스)을 발표
- 이를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민영화·세금정책 개선 등 정부 내부 개혁, 인프라 개발·균형적 산업화·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환경개선 등 사업여건 개선 및 경제발전 방향 제시

표 1-3 신정부의 경제개발정책 비전과 목표 및 12대 발전과제

비전	국민화해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 국민화해와 국가통합에 기여 2. 지역균형발전 3. 역량 있고 숙련된 청년세대 발굴을 위한 기회 창출 4. 모든 시민의 참여, 혁신, 노력을 통해 발전하는 경제 제도 수립	
12대 발전과제	1. 공공재정 확충 2. 국영기업 개혁 및 중소기업 지원 3. 인적자원 개발 4. 인프라 확충 5. 고용창출 6. 농업과 경공업 간 균형발전	7. FDI 유치 등의 민간부문 발전 8. 금융개혁 9. 지속 가능한 개발 10. 조세제도 개혁 11. 지재권 보호 제도 수립 12. 대외경제 참여

자료: Myanmar Information Management Unit(2016)

○ 미얀마 금융 관련 제도·규제 동향

표 1-4 미얀마 금융 동향

현지은행 지분 출자 허용	- 외국계 은행이 현지은행의 지분 35% 범위에서 출자하는 것을 허용 • 현지은행의 건전성 및 지분율(35%)에 의한 지배력 부족 우려
외국계 은행의 법인화 허용 움직임	- 현재 단독점포로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하여, 법인화 허용에 대한 언급 - 빠르면 2020년까지 외국계 은행 법인설립 가능성 있음 - 법인설립 시 추가 지점/사무소 개점을 통한 채널 확대 및 리테일 업무에 대한 허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외국계 은행 지점의 현지기업에 대한 거래 허용	- 외국계 은행의 영업 범위가 일부 확대되어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거래 가능(수출유무 관계없음) - 업종별 투자제한 등의 사유로 로컬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도 거래 가능(단, USD 이자 지급 가능 여부는 중앙은행에서 추후 공지 예정) - 국내기업은 거래상대방이 로컬기업인 경우 신한은행 계좌 개설 시 거래비용 절감 가능(한국 본사와의 송금/미얀마 국내 송금)
중앙은행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 기준환율 산정방식 변경 (매일 10:30 중앙은행 Auction 결과 공지 → 매일 오후 4시 당일 실 거래환율 반영하여 공지) ※ 은행 간 거래 60%, 고객 간 거래 40% 반영
수출입 송금 모니터링 강화	- 수입대금 송금 및 수출대금 수취에 대한 수입/수출면장 금액과의 비교 모니터링 - 취지: 미얀마 외 제3국 계좌로의 수출대금 수취에 대한 규제, 수출입 금액 과소 신고 방지 - 현상: 현지은행의 경우 사전송금을 중단한 상태,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방식 유지(근거계약서 및 사후 보완 확인서 제출 후 사전송금)
CNY/JPY 거래 허용	- 대 중국/일본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2개 통화 거래 추가 허용 - 신한은행의 경우 CNY 거래 니즈가 있는 고객을 위해 ICBD와 환거래 협약체결 준비 중

자료: 미얀마 금융시장 안내(신한은행)

○ 낙후된 경제발전과 고성장·고물가 기조 지속

- 50여 년간의 독재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침체가 지속되었으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으로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낙후된 상태
- 또한, 개방정책 이후 지속된 고성장 기조의 반작용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된 환율상승으로 수입재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내수 시장 성장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
-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시장 성장 예상
 - 미얀마는 5,200만 명 규모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1인당 구매력기준(PPP) 소득 1만 달러를 초과할 전망
 - 내구재 소비가 시작된다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선을 돌파(2019년 1인당 국민소득 1,400달러 돌파 전망), 소비시장 성장 예상
- 2016년,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0월 7일 미얀마에 대한 투자, 무역 등을 제한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폐지함으로써, 20년 넘게 지속된 경제제재가 해제됨
 -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지고 미얀마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표 1-5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연도	내용	관련 법규
1997	對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행정명령 13047
2003	미얀마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자산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버마 자유 민주화법, 행정명령 13310
2007	자산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48
2008	자산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64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 확대, 미얀마産 루비, 옥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버마 군부의 반민주 노력 저지 법
2012	미국 입국 금지대상 지정	행정명령 13619
2016	미국의 對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 조세, 주요법률 등의 제도개선 추진
 - 현재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규모는 GDP의 5% 미만에 불과하며, 세금정책의 개선을 통하여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사업 자금조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구할 계획
 - 재정의 적자 축소와 신규 재정투입 확대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
 - 공기업 민영화, 자원개발 인허가권 추가 개방, 소득세, 부동산 임대세 등의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대 활동도 강화할 예정

○ 무역적자 감소추세

- 상무부 차관은 2012/13 회계연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무역적자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19년 5월 10일 기준 무역적자는 9.05억 달러를 기록
- 이번 회계연도 수출액은 153억 달러, 수입액은 158억 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적자는 5억 달러로 추산
- 무역적자 폭 감소추세는 정부의 수출 장려정책과 더불어 봉제품, 농산물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현 회계연도, 최대 FDI 국가는 싱가포르

- 2018년 10월-2019년 5월간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가는 싱가포르로, 21개 싱가포르 상장 기업이 총 16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2위는 중국으로 82개 프로젝트 추진을 목적으로 3.23억 달러의 자본을 유입
- 2018년 10월-2019년 5월 8개월간 총 24.9억 달러가 미얀마에 투자 되었으며,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70개 기업이 미얀마에 진출

□ 산업환경

○ 기업 진출환경

- 지난 50년간 폐쇄정책을 추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존재 하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외국인·기업을 보는 부정적 시선 잔재
- 지속적으로 기업을 위한 개선정책을 발표는 하고 있으나 실행되지 않거나 진행이 더딘 편
- 미얀마의 기업경영여건 순위는 171위로 최하권이며, 특히 계약실행 (188위), 투자자 보호(183위) 등의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

○ 신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방향

표 1-6 NLD 신정부의 산업육성 정책방향

분야	NLD 산업정책 방향	유망분야
농업/어업	단기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농업·어업·축산 분야 집중 개발, 기술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확대	농업 및 수산물 생산, 비료 및 농기계, 식품가공
섬유	원사부터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기술 표준화	염색 및 원단 생산 섬유기술 및 표준 전수
의료	건강보험 및 서비스 개선, 의약품 보급 및 민간병원 확대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의료장비, 민간 의료보험
인프라	상하수도, 전력 등 기초인프라 및 지역개발, 대도시 공동 운송시스템 개선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에너지	대규모 신규 개발 지양 및 기존 시설개선,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노후 발전 장비 개량

자료: KOTRA 미얀마 양곤 출장자료

○ 산업 환경의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

- 미얀마는 아세안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졌으며, 넓은 국토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보유
- 이에, 서방국가들은 2011년 군사정권 종식 이후 경제 제재를 풀고 미얀마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

- 과거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기후로 3모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농업이 국가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2011년 대외개방 이후 유통, 교통, 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인해 3차산업이 1차산업의 규모를 추월하여 점점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

○ (농업) 최적의 농업환경 보유

- 농업의 GDP 비중은 17.2%로 제조업(22.7%), 도소매업(19.7%) 다음으로 GDP 비중이 크며, 노동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
- 경작 면적은 1,770만 ha로 전체 국토의 약 26%를 차지
- 열대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비옥한 토지, 중국 등 대규모 시장과의 인접성 등 최적의 농업환경을 가짐
- 다모작을 시행하고 있어 65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음

- 낙후된 농기계·생산기술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나,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는 낙농업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농업 분야 외국인 투자제한 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제조업) 열악한 인프라와 환경
- 제조업은 미얀마 GDP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봉제업 (CMP, Cutting, manufacturing & Packaging), 농·수산물 가공 등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
 -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봉제업 등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품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는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 개발은 낮은 수준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재·원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워 주로 해외수입을 통해 공급
 -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고 투자·물류 환경도 열악하여 미얀마 진출기업의 원자재·제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력보급률이 낮아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산업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에너지·광물) 다양한 에너지와 광물 매장
- 천연가스 매장량은 2,832억㎥로 세계 40위를 차지하며, 원유 매장량은 5천만 배럴로 세계 75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광물이 매장되어 있음
 - 우라늄이 포함된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중요 광물과 루비·옥(Jade) 등 귀금속 매장량도 풍부
 - 미얀마는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글로벌대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자원개발을 하고 있음

3. 시장분석

-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투자·물류 환경이 열악하고 기본 인프라 미흡
- 교역량과 외국인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향후 전력·도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활성화 예상

가. 전략적 가치

○ 성장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

- 약 50년간 지속된 군부의 폐쇄정책으로 시장경제 발달이 미비했으나, 민간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성장 모멘텀 확보
- 한반도의 6배에 이르는 영토와 가스·석유·옥·진주·티크 등 천연자원 보유
- 최근 소비수준도 빠르게 증가하여 소비시장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

○ 전략적 요충지

- 중국, 인도 2대 신흥 거대시장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태평양경제권(TPP)과 아시아경제권(RECP)의 접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 중국·인도의 갈등으로 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상승

나. 수출입 동향

○ 2017/2018 회계연도, 2017년 12월까지 약 106억 9,710만 달러 수출,

약 136억 5,570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3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시장이 호황을 맞아 전년도 수출 상당량을 차지하였던 철강제품은, 2016년 하반기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 규제 및 중간 지시로 인해 수출 급감 (전년 동기 대비 89.4% 감소)

- 향후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기계, 직물, 수송기계,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건축 기자재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 예상

- 2012년 이후, 서구의 미얀마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미국, EU로 수출 재개

- EU의 경우 특혜관세가 다시 회복되어 봉제, 가발, 가방, 액세서리 등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제조된 섬유제품 등 CMP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미얀마산 섬유제품, 콩, 냉동 어류 등 농수산물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임
- 국경을 마주한 중국, 태국과의 교역량이 수출입의 대부분을 차지

표 1-7 미얀마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12월까지)
1	중국	2,238.0	2,910.7	4,673.8	4,596.6	5,055.4	4,046.6
2	태국	4,000.5	4,306.2	4,028.6	2,893.1	2,202.2	2,146.3
3	인도	1,018.6	1,143.5	745.8	904.1	943.4	524.7
4	싱가포르	291.3	694.0	758.8	725.4	472.8	696.3
5	일본	406.4	513.2	556.2	393.7	784.2	655.7
6	독일	42.9	40.3	68.1	85.0	219.7	288.2
7	한국	280.7	352.9	369.8	259.9	342.4	209.4
8	말레이시아	97.9	108.8	265.1	161.3	159.0	136.7
9	인도네시아	31.5	60.0	86.0	139.8	125.0	85.9
10	홍콩	26.9	489.1	288.6	282.8	204.1	53.6
-	기타	541.7	584.8	681.6	694.4	1,443.4	1,853.7
총합계		8,977.0	11,204.0	12,523.7	11,136.5	11,951.6	10,697.1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2018.8 기준)

표 1-8 미얀마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12월까지)
1	중국	2,719.4	4,105.4	5,019.9	6,395.4	5,749.0	4,492.1
2	싱가포르	2,535.4	2,910.2	4,137.3	2,970.9	2,494.3	2,030.9
3	태국	696.8	1,376.9	1,678.9	1,972.8	2,086.2	1,561.1
4	일본	1,091.7	1,296.2	1,749.3	1,452.2	1,247.5	724.6
5	말레이시아	360.9	839.6	743.9	588.7	821.3	698.9
6	인도네시아	195.2	438.8	550.5	601.9	702.1	667.8
7	인도	301.7	493.5	594.9	807.3	999.6	618.1
8	베트남	74.7	169.8	241.1	290.1	405.7	440.9
9	한국	343.2	1,217.9	492.9	396.6	523.6	362.1
10	미국	119.9	79.6	494.0	127.6	498.5	1,703.6
-	기타	629.7	831.0	929.9	973.9	1,683.3	1,703.6
총합계		9,068.9	13,759.5	16,633.2	16,577.8	17,211.1	13,655.7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2018.8 기준)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 미얀마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있으나, 수입제한 품목이 4,000여 개에 달함
- *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
- 기술장벽 및 지적권 보호로 인한 비관세장벽은 규정 미비로 인해 낮은 수준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수입허가와 번거로운 통관절차로 인한 장벽 존재

다. 투자

□ 외국인투자 동향

- 2011년 대외개방 이후 석유·가스, 제조업, 교통 분야 투자 급증, 2014년 호텔 등 건설 프로젝트 확대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8월 기준으로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 누적 승인액은 772억 달러임

표 1-9 연도별 미얀마 투자유치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금액	4,645	1,420	4,107	8,010	9,481	6,649	5,718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2018.8 기준)

- 산업별로는 對미얀마 수출입 제재 완화 이후 제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석유·가스(224억 달러), 전력(209억 달러), 제조업(93억 달러), 교통/통신(88억 달러)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자원부문 투자 완료 및 신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투자 감소
- 최근 투자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싱가포르 및 태국 등을 통한 우회 투자가 대부분임
- 로힝야 사태의 여파로 아직은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들의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KFC, Burger King 등이 진출하여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룸

- 2011년 1월 27일 정부는 투자자의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특권 및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특구법(SEZ)을 공포하여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 투자 관련 법규 동향

○ 신회사법의 개정

- 기존 회사법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무조건 외국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신회사법은 외국인투자 시에도 투자 지분이 35% 이하인 경우 내국기업으로 취급되며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받지 않음
- 외국인은 매매, 증여, 저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외국인투자 지분이 35% 이하인 기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됨
- 신회사법 개정은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가 나타났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외국인의 현지기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기업의 미얀마 시장진출 등에 따라 미얀마의 경제성장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미얀마 상표법

- 등록방법: 선사용주의를 선출원주의로 변경, 기존 상표 소유권자도 반드시 재등록 필요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10년씩 연장 신청 가능
- 전담조직: 지식재산권 중앙위원회, 미얀마 지식재산청(Myanma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PO)
- 상표우선권: 파리협약, WTO 회원국 상표 등록권자 우선권 인정, 상표 등록 취소 요건 명확화
- 위반조치: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권 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요청 가능
- 불허상표: 차별성 결여 상표, 미얀마의 품위 및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표
- 기타: 동일 상표 신청 시 먼저 신청한 상표가 우선

○ 미얀마 신투자법

표 1-10 미얀마 신투자법 주요 변경 내용

구분	신투자법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투자 모두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 지정 사업
투자금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과 같은 투자들을 '금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미얀마 내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b) 해외에서 시험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c)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d)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e)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f)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세금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는 특정 사업영역 및 지역에 주로 부과될 예정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도 MIC 승인하에 조세 감면 혜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지역: 연속 7년 · 중개발지역: 연속 5년 · 개발된 지역: 연속 3년
자금 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자금 송금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본.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본 계좌 관련 규정에 따름 (b) 이익, 양도소득,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사용실시허가로, 기술적 보조 및 관리 수수료, 주식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당기 순이익 (c) 투자 또는 투자 관련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대금 또는 청산 대금 (d) 대출 계약 등 계약에 따른 지급 (e)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의 결과로 얻은 대가 (f) 투자, 수송, 국유화에 따른 배상 또는 기타 지급 (g) 미얀마에서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의 급여 및 기타 수입

자료: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법무법인 율촌

라. 프로젝트

- 신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 중
 - 재정 부족으로 PPP 또는 국제기구와 투자국의 원조자금을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재정 부족 및 지역분쟁으로 인하여 신규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기존 프로젝트 완료로 방향 전환하여, 프로젝트 발주는 감소 추세

4.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동향

가. 교역

- 對미얀마 수출입
 - (수출) 2018년 8월 기준 3억 6,07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 기준 직물(5,679만 달러), 산업기계(4,199만 달러), 수송기계(3,895만 달러) 순임

표 1-11 對미얀마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6		2017		2018.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출액	760,717	15.3	573,209	-24.6	360,777	-8.3
1	43	직물	81,148	-3.6	79,499	-2.0	56,795	6.4
2	72	산업기계	47,656	-54.3	66,138	11.9	41,991	-4.1
3	74	수송기계	66,913	-31.1	74,066	33.5	38,959	-19.5
4	44	섬유제품	44,073	-12.4	47,235	7.2	37,242	21.7
5	22	정밀화학 제품	40,465	14.8	39,703	-1.9	23,689	-12.0
6	31	플라스틱 제품	38,078	5.2	31,158	-18.2	22,547	-4.1
7	84	전기기기	42,761	-19.2	34,649	-19.0	21,071	2.1
8	21	석유화학 제품	13,648	-47.5	11,195	-18.0	10,380	17.2
9	62	비철금속 제품	18,621	22.6	11,183	-39.9	10,263	1.3
10	61	철강제품	238,764	1,561.1	18,020	-92.5	10,099	-16.1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 진출전략 미얀마

- (수입) 2018년 8월까지 3억 64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섬유제품(16.4%), 농산물(9.5%), 비철금속제품(63.2%), 생활용품(32.8%)

표 1-12 미얀마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6		2017		2018.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입액	458,666	-9.3	463,287	1.0	306,481	13.0
1	44	섬유제품	346,246	-12.9	353,484	2.1	230,222	16.4
2	01	농산물	42,133	-15.4	35,968	-14.6	23,236	9.5
3	52	기타 생활용품	21,274	35.5	26,766	25.8	18,412	-1.9
4	62	비철금속 제품	5,378	-19.8	10,984	104.2	11,444	63.2
5	51	생활용품	8,036	-0.3	9,000	12.0	8,157	32.8
6	03	임산물	8,159	25.3	8,706	6.7	5,529	-5.2
7	04	수산물	4,425	18.8	4,308	-2.7	4,111	58.5
8	72	산업기계	307	-97.0	7,597	2,374.5	1,434	-80.7
9	25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467	726.3	1,925	31.3	1,269	-3.1
10	83	전자부품	4,246	4.3	1,384	-67.4	584	-42.3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 진출전략 미얀마

나. 투자

○ 한국의 미얀마 투자 현황

- 투자 신고 누적액(1990-2018년)은 56억 482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실투자액은 32억 389만 달러이며, 최근에는 제조업 등 소규모 투자 위주로 전환
- 법인 수 기준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광업의 투자가 전체 50%를 차지
- 투자금액 기준으로 광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37.6%를 차지하며, 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3년 500kV 송전망 구축사업에 100백만 달러,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5.9백만 달러 투자 등
- 2014년 철도 현대화 사업에 45백만 달러, 2014년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에 423.3백만 달러 투자 등

5. 정부 구성

가. 미얀마 주요 인사

표 1-13 미얀마 주요 인사

구분	사진	이름	취임일
대통령		윈 민(Win Myint)	2018.4.1.
부통령		민 수웨(Myint Swe)	2016.3.30.
		헨리 반 띠오(Henry Van Thio)	2016.3.30.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2016.3.30.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 진출전략 미얀마, alchetron.com, Equality Myanmar

나. 정치체제 및 선거제도

- 연방국회의 구조: 양원제, 민족의회와 국민의회
- 사법부: 3심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선거제도(간선제)
 - 총선을 통해 구성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며, 군부도 1명을 지명, 총 3명에 대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실시
 - 선거결과,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임명

6. 2019년 주요 이슈 및 2020년 전망

가.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

- 신정부는 2018년 8월 평화, 번영, 민주의 발전을 위한 MSDP를 발표
- MSDP의 5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부처별 실행계획 발표
- MSDP는 금융업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외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됨

표 1-14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SDP)

추진 체계	구성	내용
평화 및 안정	목표1	평화, 국민화해, 안보 및 거버넌스 강화
	목표2	경제적 안정, 거시경제관리 강화
번영 및 협력	목표3	고용 창출 및 민간주도 성장
사람 및 지구	목표4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발전
	목표5	번영을 위한 천연자원 및 환경

자료: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2018. 8)

나. 로힝야 사태

- 미얀마는 7개 지역과 7개의 주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 국가로서, 주는 소수 민족으로 구성
- 일부 지역의 경우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수민족과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8월에는 미얀마 군부와 로힝야족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
- 미얀마는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군부가 일으킨 로힝야 사태를 신정부가 책임지고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
- 로힝야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로힝야 사태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220만 명 가운데 약 130만 명이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약 100만명이 방글라데시 접경인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음. 언어는 인도 아리아어 계통의 로힝야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이슬람교이어서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서 사회적·종교적 갈등이 발생하였음.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다 '17년 8월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사건

다. 양곤 도시개발위원회(YCDC) 선거

- 3월 31일 YCDC 관할 33개 타운십(총 유권자 수 340만 명, 유권자는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YCDC 관할 지역에 거주한 모든 시민) 2,87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105개 선출직에 총 271명의 후보자가 등록(이 중 160명은 무소속, 90명은 NLD 소속, 23명은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소속 후보)
- 선출 의석은 YCDC 최고 위원회 위원(6석), 33개 타운십 개발위원회 의장(33석), 각 타운십 개발위원회 위원(각 2석)
- NLD 소속 후보들이 YCDC 선출직 위원 6석, 타운십 위원회 99석 중 83석 등 89석을 차지하였고, USDP 소속 후보들은 전패
- 이 선거는 60년 만에 참정권을 가진 모든 성인과 각 정당들의 합법적인 참여로 치러진 선거

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 방문

- 2020년 한국-미얀마 수교 45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미얀마를 국민 방문함
- 문재인 대통령은 윈민 대통령과 수지 국가 고문을 만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양국은 협력을 다짐하는 여러 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함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양국 간 통상 및 산업 협력을 위해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와 미얀마 건설연합회(MCEF)) 양국 간 건설기계 분야 시장정보 공유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한 건설기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건설 전문인력 양성 관련 ODA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 미얀마 등 신남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신한은행 영업망을 기반으로 국내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미얀마 수입업자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및 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KB국민은행과 양곤지방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미얀마 송출 근로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와 양곤 저소득층을 위한 저비용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제공 협정 체결
- (IBK은행과 미얀마 중소기업개발은행) 스타트업 기업 지원 육성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
- (우리금융그룹과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가 진출 시 행정절차, 금융업무, 투자정보 제공 등을 지원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체결) 대출 조건은 이자율 0.01% 15년 거치 25년 상환, 사업비 6,181만 달러 규모의 네피도 전자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eGIDC) 설립과 양곤 탄린타운십의 재해 복구 센터(DRC) 설립 사업이 포함됨. 이 밖에 ‘만달레이·미찌나’간 철도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 전력 분야 송전망 확충사업, 와타야(Watayar) 교량 건설 프로젝트, 농업 분야 소득창출 사업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계획
- 국내 9개 기관(LH,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체제인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를 결성하고,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입주기업에 금융, 인력 조달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국민 방문은 한국과 미얀마 양국 간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미얀마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

제2장 환경 현황

1. 개요
2. 물
3. 대기
4. 폐기물
5. 기타 환경

I 개 요

- 미얀마는 공업화로 발전이 늦고 도시화율도 30% 정도로 낮아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질오염, 폐기물 오염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폐기물 문제이며, 특히 3대 대도시(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의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여 향후 5년 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부족으로 인하여 투기되는 폐기물이 많고, 이로 인하여 지하수 및 토양오염도 유발되고 있는 추세임
- 수질 분야 역시 산업단지 대부분의 설비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물이 무단 방류되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전력망 부재로 전력보급률이 낮아 산업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환경오염문제가 부각될 경우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환경오염측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정부 우선 순위 과제에 환경 분야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미얀마 환경청은 단일법으로 환경보전법을 운용하고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환경보전규정이 있으며, 형식상으로는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환경산업체의 미얀마 환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미얀마가 유망한 환경시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미얀마 환경을 조사하였음

II 물

-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률이 낮으며, 지역별 편중 현상이 큼
- 대부분의 설비에서 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처리되지 않은 물의 무단 방류 문제 심각
- 공무원, 산업체 모두 폐수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단계여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과 규제기관의 정책 등 주시 필요

1. 현황 및 관리실태

가. 수자원 현황

□ 풍부한 수자원 보유

- 미얀마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부 안다만 해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에야와디(Ayeyarwady) 강, 친드윈(Chindwin) 강, 탄윈(Thanlwin) 강, 시타웅(Sitaung) 강 등 총 길이 5,600km 이르는 풍부한 수자원 보유
- 연간 평균 강수량은 약 2,500mm이며, 연간 지표수 총량은 약 992km³, 지하수는 연간 453.7km³ 정도이나, 95%의 지하수가 다시 강이나 호수로 흘러들어 지표면의 물로 구성됨
- 수자원은 농업용수에 90%, 가정용수에 9%, 공업용수에 1%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업 관개용수에 수자원을 우선적으로 공급

□ 수자원의 낮은 활용률과 지역별로 상이한 수자원 분포

-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아 잠재 수자원 중 약 5%(56km³)만을 활용하고 있음
- 미얀마는 물이 부족한 건조지대,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에야와디 델타 지역, 급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산악 지역, 태풍이나 파도가 들이닥칠 수 있는 해안 지역 등 지역별로 수자원 보유량이 상이하며, 강우량 편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별로 홍수, 가뭄 등의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미얀마의 물 접근성은 8%로 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나. 수자원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 상수도 현황 및 실태

- 상수도의 경우 부적합한 수질, 낮은 급수보급률, 시설낙후 등의 문제가 있으며,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
- 용수 수요량은 양곤시의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곤시 개발위원회(YCDC)에 의한 상수도 보급률은 50% 정도임
- 양곤시 주변의 6개 타운십 중 흘레구(Hlaegu), 모우비(Hmawbi), 탄타빈(Htantabin), 트완떼(Twantay) 등 4개의 타운십은 상수공급시설 없이 개인이 개발한 우물, 연못, 빗물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양곤시는 부족한 용수공급량을 지하수를 활용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YCDC에 의해 개발·관리되는 관정과 개인이 개발한 관정 및 굴착정을 이용하여 지하수 취수
- 농촌 역시 급수 시스템이 양호하지 못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물, 펌프, 관정을 설치하는 실정
- 양곤시의 급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YCDC는 저수지를 개발하고, 하천의 정화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관우물과 펌프장 시스템도 매년 추가되는 추세

□ 양곤시 정수장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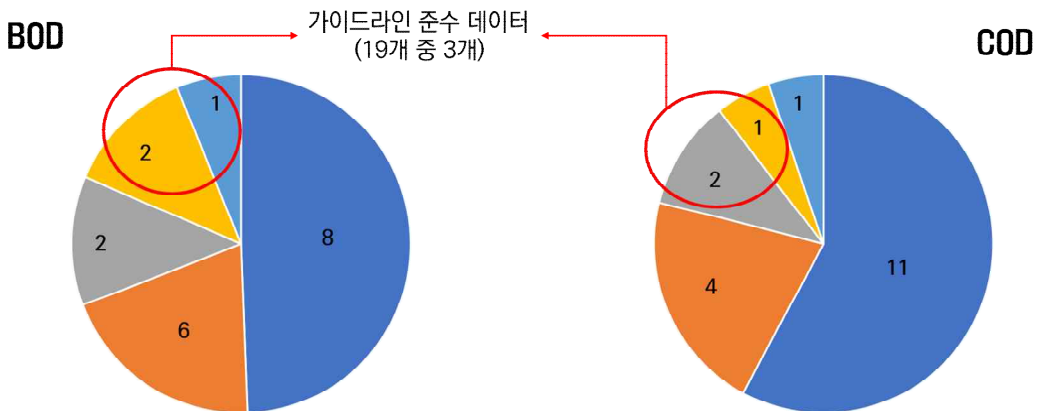
- 양곤시에서 호소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은 나웅나핀(Nyaunghnapin) 과 교부(Gyobyu) 정수장으로 총 2개소
- 교부 정수장의 경우 처리된 정수가 다시 원수와 혼합된 후 소독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어 정수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나웅나핀 정수장 역시 용량이 400,000m³/일로 양곤시 수요량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 양곤시 관로의 경우 매설연도가 100년을 초과하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회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

□ 하수도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 하수도의 경우 부족한 시설과 서비스, 관리기관 부재 문제가 존재하며, 하수처리장은 양곤시와 수도인 네피도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음
- 양곤시의 하수도보급률은 2011년 기준 5%로 중심업무지구 일부에만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노후화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분뇨이송을 위한 오수 압송관거, 압축공기 주입설비 및 이젝터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지나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 폐수처리시설 대부분 배출기준 미준수

- 국가환경기준지침이 수립되었음에도, 양곤과 만달레이 공장의 70% 는 해당 지침을 모르고 있음
- 또한, 설비의 46%만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대부분의 설비에서 배출 되는 폐수는 환경지침(BOD: 50ppm, COD: 250ppm)을 초과
- 2016년 만달레이에서 채취된 데이터 중 약 16%만이(19개의 데이터 중 3개의 데이터) 오염 물질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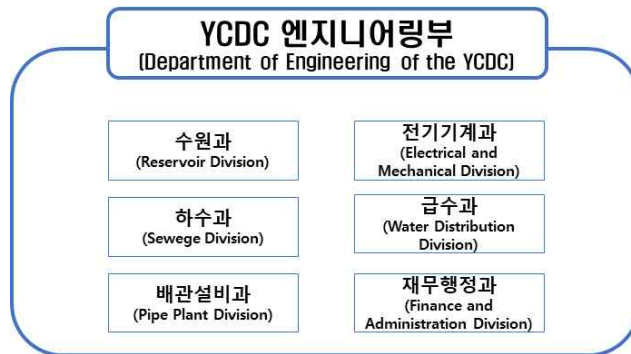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 그림 2-1 ■ 만달레이 폐수 샘플링 측정 데이터

□ 물 관련 부서 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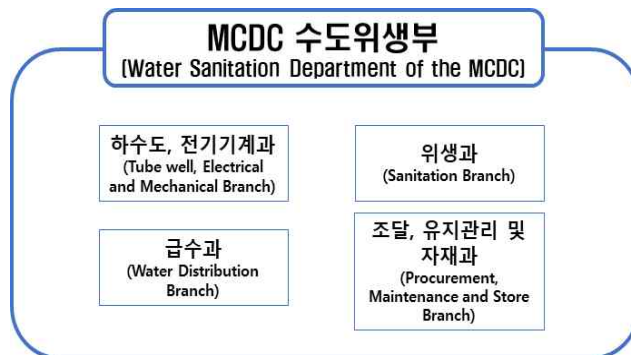
- 환경청(ECD)에서 주로 수질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건설, 보건 등 타 부서에서도 폐수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 YCDC의 엔지니어링부는 폐수 규제를 담당하며, 이 부서는 폐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도과를 포함하고 있음
 - 양곤시의 물을 관리하는 YCDC의 경우, 상하수도부서는 지난 100년간 상수공급시설을 운영해오고 있어,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역량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정수장의 계획 및 설계 능력은 낮은 수준이며, 설계를 위한 기준 수립조차 되어있지 않음
 - 전반적으로 수질관리 역량과 이를 위한 조직 및 장비, 분석능력 등도 낮은 수준임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 그림 2-2 ■ YCDC 폐수관리 부서 조직도

- 만달레이 개발위원회(MCDC)의 수자원 및 위생 부처는 만달레이시의 폐수 관리를 담당하며, 4개의 과로 구성됨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 그림 2-3 ■ MCDC 폐수관리 부서 조직도

다. 수자원 오염현황

□ 수질오염의 가속화

-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를 통해 흐르는 강은 가정하수로 인한 오염문제가 심각하며,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도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수원인 에야와디 강의 경우, 강 인근 농지의 화학 비료 및 농약 등으로 인한 오염 심각
- 양곤시의 경우, 전체 수돗물 중 25% 정도만 염소처리를 거치며, 수돗물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되기도 함
- 대부분의 저수지 펌프장 및 송수관로가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누수율 증가와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자료: 1차 현지조사

■ 그림 2-4 ■ 미얀마 수질오염

□ 높은 무수수량*(NRW) 비율, 물 부족 현상의 가속화

- 시설의 노후화, 누수 등으로 인하여 무수수량 비율이 높음
- 양곤시의 경우 무수수량 비율이 66%에 달하며, 이는 시의 자원 부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프랑스 개발청(AFD)은 2017년 10월 양곤 내 무수수량 관리 프로젝트를 위해 12만 유로를 지원
 -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연간 5만m³의 용수가 절약될 것으로 추산
- 물 부족 현상은 농촌 지역보다 상공업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물 부족 현상의 원인

* 무수수량(Non Revenue Water, NRW): 누수 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으로 징수할 수 없는 물의 양

□ 폐수배출기준 미준수 기업, 처벌 지속 강화 예정

- 2017년 7월, YCDC 환경보호청소국(PCCD)은 양곤 소재 24개 산업단지 내 3,474개의 공장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일부 산업단지 내 주류, 쌀국수, 봉제 및 염색 공장 등에서 별도 처리를 거치지 않은 폐수를 인근 강으로 무단 방류
 -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공장은 점검 대상 공장의 5%에 불과
 - YCDC는 양곤 내 16개 주류 제조공장 중 14개 공장에 대해 폐수처리 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장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림
- PCCD는 공장들이 배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며, 산업계 내부에서도 폐수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함

2. 시장현황 및 분석 등

가. 시장현황

□ 양곤시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화 심화

- 양곤시의 송수관로는 총 5라인의 156.2km로 취수원인 저수지에서 직접 급수구역으로 이송하고 있어, 도수관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정수장 및 관로시설을 확충하여 도수 및 송수관로의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5라인의 송수관로가 모두 노후화된 실정이어서 교체 필요

표 2-1 양곤시 송수관로 현황

구분	관종	관경	연장(km)	통수개시(년)
칸또지(Kandawgyi)	연강관	1,400	69.2	1940
푸기(Phugyi)	흙관	1,500	26.0	1988
흘로가(Hlawga)	흙관	1,650	16.7	1988
흘로가(Hlawga)	회주철관	1,050	19.0	1904
예구(Yegu) 펌프장	회주철관	225	25.3	1904
합계			156.2	

자료: 미얀마, 물산업 진출전략(KEITI)

- 양곤시의 급수관로는 총 656.8km로 양곤시 중심부 급수구역에 상수를 공급
 - 일부 급수관로의 경우 사용 연한이 100년을 초과하고, 구조적·환경적으로 취약한 회주철관(CIP), 아연도강관(GIP) 등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교체 공사가 필요

표 2-2 양곤시 급수관로 현황

사용연수	관종별 연장(km)						비고
	합계	CIP	DIP	GIP	PVC	RCP	
70-100년	191.5	191.5	-	-	-	-	전량 교체
50-70년	100.6	64.3	18.6	6.4	1.5	9.8	전량 교체
20-50년	180.7	151.2	8.4	6.2	3.6	11.3	CIP, GIP, RCP 교체
20년 미만	184.1	24.7	1.4	28.5	117.7	11.7	CIP, GIP, RCP 교체
합계	656.8	431.8	28.4	41.0	122.7	32.9	교체 필요수량이 525.7km

자료: 미얀마, 물산업 진출전략(KEITI)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주도하는 사업 다수

- 양곤 용수시스템 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 JICA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JICA 재원으로 시행 중인 용수 관련 프로젝트가 양곤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2040년까지 계획 중인 프로젝트도 다수임

나. 시장분석

□ 상하수도 관련 시장 활성화 예상

- 양곤시의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양곤시의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증가하는 용수 수요량의 확보와 급수보급률 향상을 위한 신규 수자원 확충, 상수공급시설의 운영·유지관리기술 필요
 - 양곤시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4개소의 저수지는 급수구역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양곤시 급수구역 인근의 하천을 취수원으로 활용하거나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등의 대안 필요
 - 이를 위해 하천의 염분농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공법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일본 등 유럽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제품도 직수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품은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실정

□ 정수기 수요 증가 전망

- 음용수에 석회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어 음용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인구급증과 경제개발의 급격화에 따라 단기간 내 상수도 공급체계의 개선이 쉽지 않아,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수기 시장은 2016년 대비 80.22% 성장하였으며, 양곤, 만달레이 두 도시에서의 정수기 수요가 70% 이상을 차지
- 정수기는 주로 호텔, 대형식당, 병원, 레지던스, 콘도, 병원, 국제학교 등에서 사용되고, 일반가정에서의 사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정수기 구입 시, 가격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여 중국과 태국산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미데아, 아쿠아 워너, 뎡안 등의 수요가 가장 많음
- 한국 브랜드로는 현대와코텍, 청호나이스, 한우물 등이 진출
 - 미얀마에서 한국산 정수기는 고품질이라 인식되고 있어 관련 시장진출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A/S망 구축과 광고 등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관심 필요

- 폐수관리 문제는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론화하는 단계이며, 양곤시의 경우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제재도 논의 중
-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를 중심으로 기업인들도 폐수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개별 공장이 자발적으로 폐수관리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데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양곤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약 2억~3억 짜트(한화 약 1억 5,754만~2억 3,631만원) 정도로 알려져, 비용 측면에서도 개별 회사들이 단독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각 도시 개발위원회나 각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정책에 따라 시장 성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시장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대기

- 정부의 자동차 수입허가 이후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 급격히 증가
- 그러나, 대기오염 현황 및 시장현황 등 자료 파악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타 분야 대비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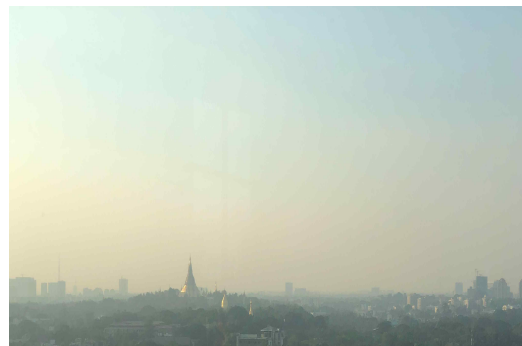
1. 현황 및 관리실태

가. 대기 현황

□ 대기오염 문제 증가 추세

- 도시 규모의 증가, 경제발전, 에너지 소비수준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증가
- 2018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대기질 지표 (가정 대기질, PM2.5에 의한 평균 폭로*, PM2.5 초과)에서 전체적인 대기질은 전체 18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이었으며, 대기오염 지표 (SO₂, NO_x 방출)는 25위를 차지

* 폭로: 시료를 자연에 장기간 노출시켰을 때의 물성 변화를 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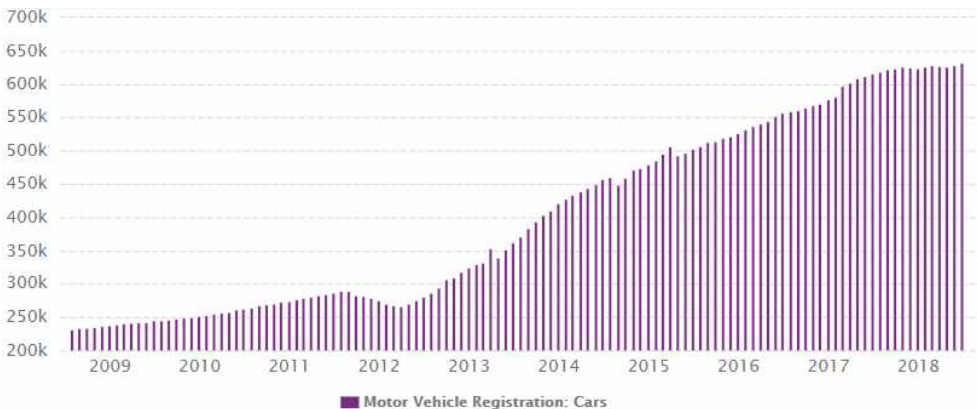


자료: depositphotos, 1차 현지조사

■ 그림 2-5 ■ 미얀마 교통체증과(좌) 대기오염 현황(우)

□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 정부의 자동차 수입허가 이전의 대기질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자동차 수입허가 이후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양곤시의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편임
 - 정부의 시장개방으로 2011년부터 중고차 수입규제 완화, 가격 하락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자동차 판매 등으로 자동차 보급률 급향상
- 2018년 7월 기준 미얀마에 등록된 자동차는 632,174대로 2005년 187,354대에 비하여 약 3.5배 늘어난 수치이며,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www.ceidata.com)

■ 그림 2-6 ■ 미얀마 자동차 등록 현황

□ 실질적인 대기오염 현황 및 시장현황 파악 미흡

- 대기 분야는 타 분야 대비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오염 현황 및 시장현황 자체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관리실태 및 오염현황

□ 양곤 대기질, WHO 기준 초과

- 양곤에는 현재 3곳에 고정 대기오염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외 60여 개의 모바일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
- 측정 결과, 양곤 관구 일부 타운십의 대기오염 수준이 WHO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측정지점: 까마웃(Kamayut), 흘레단(Hledan), 마닝곤(Myaynigone), 밍갈라돈 산업단지(Mingaladon Industrial Zone), 산차웅(Sanchaung), 짜욱타다(Kyauktada), 키밍다인(Kyimyindine), 타웨이(Tamway), 흘라잉(Hlaing) 타운십 등(6개 타운십 내 9개 지점에서 측정)
- 측정지점 중 키밍다인 타운십의 오염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오염원은 산업단지와 자동차임
- WHO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매년 22,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교통부문 대기질의 지속적 관리

- 미얀마는 교통부문의 대기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교통부문 대기질 관리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법안(1964) 및 자동차 규칙(1989)
 - 양곤시 개발지구에 20년 이상의 노후차량 등록 금지
 - 매년 자동차 갱신 및 2년마다 오토바이 갱신
 - 불시 검사
- 교통 소음에 관한 단속 기준은 최대 115dB
- 극심한 매연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 단속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시행
 - 1단계: 차량의 배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경고 및 강제 활동
 - 2단계: 기 발행된 차량 등록증 및 차량 검사 인증서 철회
 - 3단계: 처벌 조치

2. 대기 분야 관련 이슈

□ 한국 기후변화센터와 SK텔레콤,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폭 확대

- 한국 기후변화센터와 SK텔레콤은 11월 13일 네피도 농촌진흥훈련장에서 열 효율이 높은 쿡스토브 보급 프로젝트를 위해 업무용 차량 96대와 오토바이 240대 등 보급 지원 물품들을 농림축산부(MOALI,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산하 농림국에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짐

○ 쿡스토브 보급 프로젝트

- 시멘트 소재로 만들어진 난로 형태의 열효율이 높은 조리도구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나무 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얀마 현지에서 쿡스토브를 제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며 연기와 분진 발생량도 줄여 가사노동 환경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쿡스토브는 한국 기술을 이용하여 사가잉 지역 Kyauk Myaung 타운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개당 가격은 4~5달러
- 이 프로젝트는 만달레이 지역 Myingyan와 Yamethin 타운십, 마궤지역의 Pakokku와 Magway 타운십, 사가잉 지역 Sagaing과 Monywa 타운십 216,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
- 향후 5년간 423만 대의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쿡스토브 1개당 1달러를 농촌개발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므로, 5년 이내에 423만 달러의 농업 개발기금이 조성될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 매년 121.5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K 그룹은 2025년까지 53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IV 폐기물

- 폐기물의 급격한 증가, 적절한 처리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 증대
-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기준 이하
-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에 실패한 상위 20개국에 등재

1. 현황 및 관리실태

가. 폐기물 발생 현황

- 급증하는 폐기물, 쓰레기 하치장 처리용량 턱없이 부족
 -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 폐기물의 양은 2005년 259톤/일에서 2015년에는 896톤/일로 약 3.5배 증가
 - 특히, 3대 대도시(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의 성상도 다양해짐
 - 양곤은 미얀마 총 폐기물 발생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만달레이가 약 17%로 그 뒤를 이음
 - 그동안 주로 플라스틱과 종이 등 유기물질의 폐기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유해 산업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의 신규 폐기물이 생성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미얀마의 도시고형폐기물(MSW) 발생량이 2012년 하루 5,616t에서 2025년 2만 1,012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 YCDC는 하루 약 2,300t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6개 하치장 전체의 하루 처리용량이 2,000t에 불과해 나머지 300t은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인구증가율에 비례해 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증하기에, 양곤은 향후 5년 내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전망

□ 주요 대도시의 폐기물 발생 현황

- 미얀마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2,500톤/일, 산업폐기물은 250톤/일, 의료 폐기물은 2.15톤/일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만달레이(955톤/일), 양곤 (1,981톤/일), 네피도(160톤/일) 등 3개 대도시에서 약 55%가 발생
- 양곤시 폐기물 현황
 - 양곤시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은 YCDC 산하의 환경보호청소국 (PCCD)이 수거하여 총 6개의 단순매립방식의 최종처분장(FDS)으로 운반됨
 - 폐기물 수거는 1차 수거, 임시 저장, 2차 수거 방식이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2차 수거 후 매립장으로 바로 운반되나, 수거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노상에 방치되어 인접 지역에 악취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매립방식은 투기(Dumping) 방식으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의 가능성 농후
 - 폐기물 성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폐기물관리가 어려워, 상당량의 유독성 폐기물이 별도로 분리수거 되지 않고 비위생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음
 - 양곤시의 폐기물관리를 위한 중기 계획은 아직 부재한 상태로, 법령 및 규제 이행 미흡이 폐기물관리의 주요 장애물임
 - 양곤시의 폐기물 발생 현황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7-2018년에는 0.5/kg/capita/day까지 증가함



자료: 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Mandalay City Development

그림 2-7 양곤시 폐기물 발생량

- 2011년 기준으로 양곤시의 폐기물 배출량은 1,655.94톤/일이며, 이 중 생활폐기물이 대부분(93%)을 차지함

표 2-3 양곤시 2011년 폐기물 수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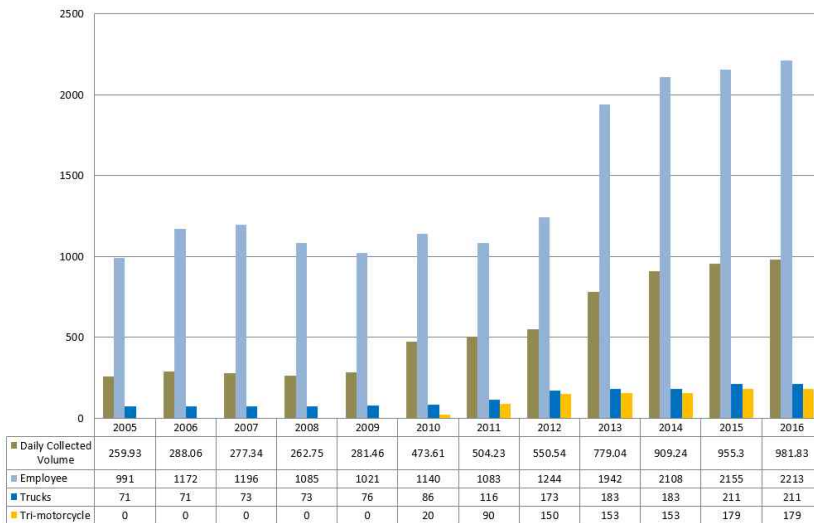
구분	폐기물 종류	발생량(톤/일)	비율(%)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1,545.00	93.32
산업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	109.40	6.59
유해폐기물	유해산업폐기물	0.14	0.08
	감염성폐기물	1.40	0.01
합계	-	1,655.94	100

자료: Pollution Control and Cleansing Department, PCCD

○ 만달레이시 폐기물 현황

- 작업자가 집마다 방문하여 손수레, 트라이크 등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트럭으로 운송하는 형태

Performance of Solid Waste Collection



자료: 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Mandalay City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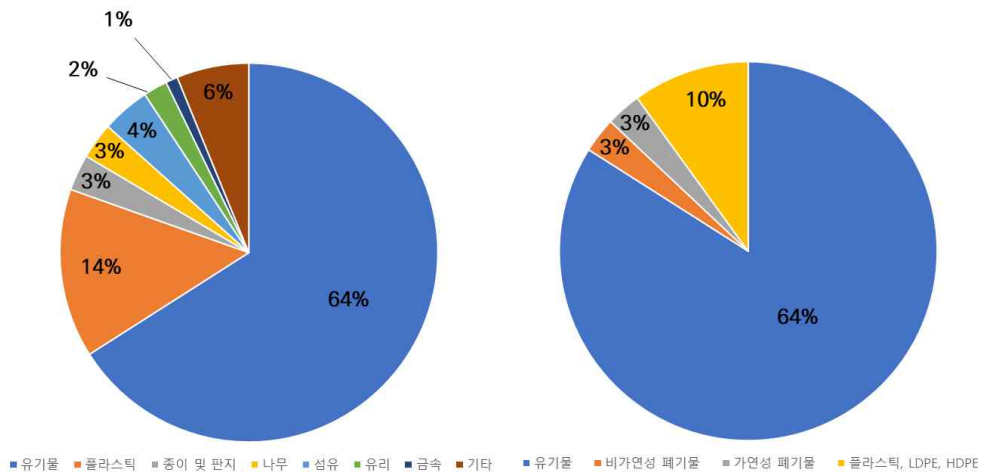
그림 2-8 만달레이시 고품폐기물 수집방법

- 2014년에 6개의 타운십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성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 18톤의 폐기물 중 유기물의 비율이 65%, 플라스틱이 15%를 차지
- 2030년에는 유기물이 52%로 감소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JICA 보고서에 따르면 만달레이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가정에서(75%) 발생했으며, 상업 부문(24%), 관광(1%) 순임

- 또한, 폐기물의 조성은 64%가 유기물이며, 플라스틱(14%), 종이와 판지(6%), 섬유(4%), 목재(3%), 유리(2%), 금속(1%) 및 기타 폐기물 (6%) 순임

○ 네피도시 폐기물 현황

- 네피도시의 경우 2016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약 160톤/일(0.517kg/인)이며, 도시고형폐기물의 대부분은 유기물(84.2%)이었음. 또한, LDPE와 HDPE(10.4%), 불연성폐기물(2.8%) 및 가연성폐기물(2.5%)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뒤를 이음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그림 2-9 양곤시(좌)와 네피도(우)의 폐기물 조성

나. 폐기물 관리실태 및 오염현황

□ 폐기물 관리현황

- 미얀마의 폐기물관리는 각 지역 도시개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미얀마 폐기물관리의 긴급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 폐기물처리 및 실행 계획은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 위해 및 기타 특수 폐기물, 액체 폐기물처리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폐기물 수거는 1차 수거, 임시 저장, 2차 수거, 최종 폐기로 구성



자료: 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Mandalay City Development

그림 2-10 폐기물 방문 수거 시스템

- 1차 수거는 가구 방문 수거, 대형 폐기물통 수거, 공동 폐기물 수거장 등이며, 방문 수거를 위하여 덤프트럭, 카트 등이 사용됨
- 수거된 폐기물은 기존 폐기물 위에 그대로 적재되며, 수작업으로 분류됨
 - 수작업으로 분류한 이후,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은 불도저 등의 기계 및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장 내로 이송
 - 분류된 폐기물은 포장, 보관 및 운송되어 도시에서 재판매되기도 함
- 고품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단순 투기, 소각 또는 재활용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특별한 전처리 없이 불법 투기되거나 소각되는 경우가 빈번함

표 2-4 2017년 미얀마 폐기물처리 유형

처리 유형	비율
재활용	22.0%(5%-양곤, 5%-만달레이)
매립	73%
소각	0.7%
분해	1.3%
기타	3%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자료: National Waste Strategy_Myanmar_2017

그림 2-11 만달레이 최종 매립장에서 작업 중인 농마주이

□ 폐기물 관련 법과 적절한 처리시스템의 미비

- 미얀마의 폐기물처리와 관리는 타운십과 YCDC, MDCDC, NCDC 산하 오염관리청소국(PCCD) 소관 업무임
- 소득과 소비수준은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 및 관리 정책과 인프라 부재
- 폐기물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환경보전법과 그 하위규정으로 환경보전 규정이 있지만, 규제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법조항이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각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자금조달이 곤란하며, 폐기물 관련 벌과금과 범칙금의 미약한 집행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움

□ 명확한 기술규정 부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폐기물관리의 어려움

-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술규정이 없고, 낙후된 폐기물 수집 장비, 부적절한 처리시설로 인한 문제 심각
- 적절한 폐기물처리 인프라의 부족, 기술적 역량 부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유해 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폐기물 불법 투기, 개인 소각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폐기물 분리 수거·재활용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을 위한 노력

▮ 표 2-5 ▮ 만달레이시 폐기물관리 목표

구분	내용
목표 A	도시 고품폐기물 수집과 3R(Reduce, Reuse and Recycling)의 극대화
목표 B	최종처리와 처리시스템의 개선
목표 C	산업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극대화
목표 D	폐수의 적절한 처리
목표 E	역량 개발, 인식 제고
목표 F	검토, 모니터링, 혁신 및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서비스 보장

자료: Mandalay Waste Strategy

-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는 행정구역에서 얇은 비닐봉지의 생산, 거래 및 사용을 금지, 2009년부터는 줄로 만든 봉투, 나뭇잎 상자 및 바구니 등 대체 봉투의 홍보를 진행함
- 재활용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청소부, 폐기물 수거인, 폐기물 판매상 등 비공식 부문에 의해 수행됨
 - 청소부, 폐기물 수거자는 거리, 상업 지역 및 최종 매립장에서 플라스틱병, 유리 등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수거하고 국내업자 및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판매
 - 양곤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 86톤의 재활용 자재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되며, 이 중 57%가 유리, 판지가 15%, 종이가 13%를 차지함

□ 빈번히 발생하는 매립장 화재

- 매립장의 화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고밀도 연기와 유독가스 등을 발생시켜 대기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가함
- '18년 4월 흘라잉따야 인근의 테인빈(Htein Bin) 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몇새 동안 매립장 404,686㎡를 태우는 등 피해가 속출함
 - 매립 쓰레기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 하면서 화재 발생
 - 24일간 하치장의 반 이상을 태운 뒤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미얀마의 폐기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자료: RTE, 2018 / THE STARAITSTIMES

■ 그림 2-12 ■ 흘라잉따야 매립장 화재

□ 심각한 플라스틱 폐기물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에 실패한 상위 20개국에 등재됨
- 양곤시의 경우 총 폐기물 중 7%, 네피도시의 경우 총 폐기물 중 10%를 플라스틱 폐기물이 차지
- 플라스틱 문제로, 2011년에는 비닐 백을 전국적으로 금지했으나 아직 만달레이시 고체폐기물의 15% 이상을 비닐 백이 차지하고 있음
- 양곤시와 만달레이시에서는 플라스틱 처리설비에서 월 약 1,000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되거나 가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산업폐기물

- 양곤시에서는 2016년에 하루 150톤의 산업폐기물이 수거되었으며, 만달레이시의 산업폐기물의 양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양곤시보다 더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한다고 보고 있음
- 산업폐기물은 별다른 사전 처리 없이 일반 도시폐기물과 함께 폐기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됨
- 일부 배출물은 위험성 때문에 특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 위원회에서 폐기물 수거 요청 시에만 특별 처리되고 있음

□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으나, 관리실태는 전반적으로 기준 이하
 - 가장 큰 문제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최종처리 및 소각시설이 없다는 것임
 - 병원성 폐기물은 특수한 최종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고 격리된 공간에서 단순히 연소되어, 대기오염 등 2차 환경문제를 초래
- YCDC와 MCDC에서 평균적으로 수집된 의료폐기물은 각각 연간 280톤과 779톤이며, 이 중 70% 이상이 전염성 폐기물이라고 추정됨
- 만달레이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수거되며,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은 Kyar Ni Kan에서 소각되고, 대용량의 생물학적 폐기물은 화장터에서 소각, 별도로 분류한 유통기한이 만료된 의료 제품은 매립

- 의료폐기물은 여러 종류의 수거 트럭에 의해 운송되며, 의료폐기물을 분리하기 위해 3가지 색상의 봉투를 사용
 - 청색 또는 녹색(YCDC)/ 흑색(MCDC): 유해하지 않은 건강 관리 폐기물 또는 감염성 및 병원성 물질(식품 잔류물, 종이, 판지 및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은 가정용 폐기물)
 - 황색: 병원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및 의료용으로 사용된 품목
 - 적색: 날카로운 폐기물로, 주로 바늘이 있는 폐기물 또는 약물 등의 의료 폐기물을 포함



자료: 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Mandalay City Development

그림 2-13 봉투 색상 분류를 통해 관리하는 의료폐기물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그림 2-14 의료폐기물 수거 트럭

□ 미얀마 폐기물 처리장 현황 및 특징

- 양곤시에는 2개의 매립장과 4개의 임시부지가 있으며, 만달레이시에는 최종 매립장(FDS)이 2개 있으나 거의 포화 상태에 이름
- 도시 주변에 적절한 매립지가 없지만, 지방정부는 자금 부족과 건설부와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매립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매립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거나 토양으로 퍼져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음
- 흘라잉따야(Hlaing Thar Yar) 타운십의 테인빈(Htein Bin)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Waste-to-energy)을 사용하여 시간당 15.4MW를 생산, 산업 지역에 판매하고 있음
- 만달레이시의 Kyar Ni Kan 처리장
 - 만달레이 시청에서 17.5km 떨어진 곳에 위치
 - 450톤/일 처리
- 만달레이시의 Taung Inn Myount Inn 처리장
 - 2011년 2월 2일부터 쓰레기 처리 시작
 - 처리장의 총면적은 109,265㎡이며, 하루 4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음

표 2-6 양곤시 최종처분 매립장 현황

최종 처분장	위치(타운십)	처리용량 (톤/일)	비고
테인빈(Htain Bin)	흘라잉따야 (Hlaing Thar Yar)	847	단순매립
트웨이 차웅(Htwei Chaung)	노스다곤(North Dagon)	612	단순매립
달라(Dala)	달라(Dala)	10	일시사용
세이키칸나웅토 (Seikkkyi Khanaung To)	세이키칸나웅토 (Seikkkyi Khanaung To)	5	일시사용
밍글라돈(Mingalardon)	밍글라돈(Mingalardon)	25	일시사용
쉐삐따(Shwe Pyi Thar)	쉐삐따(Shwe Pyi Thar)	50	일시사용

자료: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KEITI



자료: 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Mandalay City Development

그림 2-15 만달레이시 Kyar Ni Kan 처리장 전경

폐기물 관련 이해 관계자 역할 및 책임

표 2-7 폐기물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주체	역할 및 책임
자연환경부 (MONR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벤치마킹 및 역량 구축, 기술이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예: 세계은행, 한국 정부, 한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와 관련 정책, 입법 및 경제적 수단 - 폐기물관리에 대한 규제 요건 정보 공개 - 폐기물관리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벤치마킹 수행 - 폐기물관리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예: 학교의 워크숍, 공개 상담 전시회 및 공개 행사)를 위한 행사개최 - 폐기물관리 연구 및 개발 결과의 보급 지원
YCDC, NCDC, MC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 폐기물관리에 관해 개발된 법률 집행, 불법 폐기물에 대한 감시 훈련 수행 - 고품 폐기물관리 시스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자금조달 - 민관 협력(PPP)을 위한 조치 마련 -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폐기물 분리 및 운송시스템을 위한 장비 제공 - 폐기물 운영 구역 구역화 - 폐기물이 적시에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송되도록 관리 - 지정된 매립 지방정부 폐기 장소를 위생적인 매립지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시민사회 단체 (C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고품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법 폐기물 관련 활동 지원 - 지속 가능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태도 변화 유도

자료: KEITI-WB Report Final

□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 비용

- 데이터 부족으로 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스템의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
- 양곤시의 경우, 각 마을의 월별 징수료는 마을 위치에 따라 다름
 - 중앙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하루 20짜트, 한달 600짜트 수준이나, 교외 지역의 경우 하루 15짜트, 한달 600짜트 수준임

표 2-8 양곤시, 만달레이시 폐기물 월 수거료(2017)

(단위: MMK)

	가정폐기물	상업폐기물	병원폐기물
양곤시	최저 300	최저 5,000	최저 1,500
	최대 600	최대 550,000	최대 300,000
만달레이시	최저 300	최저 11,000	자료 없음
	최대 900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2. 시장분석 및 최근 이슈

가. 폐기물관리 종합 문제점

표 2-9 폐기물 관리시스템 관련 문제점

측면	주요 문제	근본 원인
폐기물 발생	폐기물 발생량 증가	- 인구증가 - 소비패턴의 변화
수거 및 운송	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낮음	- 접근이 어려운 도로 - 폐기물처리 비용 지급 부족 - 폐기물 수거 구역 설정 부족
	불규칙한 수거	- 부적합한 운송 트럭 - 폐기물 수거 및 운송 일정 부족 -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이 낮음
	부적절한 운송 트럭	- 법규를 준수하는 폐기물 수거 트럭 취득에 대한 낮은 투자
	규제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	- 폐기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책 부족
폐기 방법	일반 투기	- 적절한 폐기물처리 인프라 부족
	투기장의 부적절한 입지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근접성 - 기존 시설 기준과의 충돌 - 토지의 비 가용성
폐기물 회수	폐기물 분리 부족	- 폐기물 분리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태도 - 폐기물 수거 인력과 재활용시설 간의 연계 부족
	회수 품질 불량	- 폐기물 혼합으로 인한 오염
	적절한 기술 부족	- 연계 기술 부족 (세척, 펠렛 화 등)
법적 요건	환경법규 준수 저조	- 약한 법 집행 및 인식 부족

자료: KEITI-WB TA Report Final

□ 통합폐기물관리(ISWM) 필요

- 장기적인 관점으로 통합폐기물관리(ISWM, Integrated Solid Waste Management)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ISWM 시설 구축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0 ISWM 시설 구성요소 및 비용 분석

	분류	퇴비화	재활용	소각로	위생매립	LPG 추출	합계
초기공사비 (m USD)	6	9	10	180	50	-	255
CAPEX*	-	-	-	-	-	11	11
OPEX(%)	0.5	1.5	2	9	4	1	18
판매 가능한 제품의 단가 (톤/달러)	-	50	175	-	-	4	229

자료: KEITI-WB Report Final

* CAPEX: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2026-2030년에 발생하는 매립 가스 추출과 관련된 CAPEX를 나타냄

나. 시장분석

□ 폐기물 관련 사업 동향 파악을 통한 진출 대비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 위생매립, 폐기물 재활용 등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며, 원민 대통령은 국가적 난제인 폐기물관리를 위해 법규 개정 및 예산과 기술 제공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양곤 도시개발위원회(YCDC)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의 재활용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폐기물 분야별 환경협력사업 발굴 및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한 미얀마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향후 진출의 교두보 확보가 필요함
-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폐기물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와 더불어 에너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기업 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로 전망됨

다. 폐기물 분야 최근 이슈

- 미얀마 기획재정부, 폐기물관리를 위해 5천만 유로 차관 사용계획
 - 사업개요
 - 대상 매립지: 흘라잉따야 타운십 소재 테인빈 매립장
 - 사업 기간: 2020-2023년
 - 사업내용: 일일 1천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30톤의 CNG 액화 이산화탄소 40톤, 고품폐기물 연료 180톤, 천연 비료 250톤을 생산할 계획
 - 기획재정부 마웅마웅원 차관은 5천만 유로의 폴란드 ODA 차관 사용계획을 연방의회에 제출
 - 4년 내 매립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곤지방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목적
 - 차관 조건: 상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67년이며 대출 이자율은 0.1%
 - 대출금 상환은 시설 운영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

V 기타 환경

-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황을 겪고 있음
-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투자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정제 및 화학 등의 기술 수요가 예상되어, 향후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임

1. 전력에너지

가. 미얀마 전력에너지 현황

□ 낮은 전력보급률,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

- 미얀마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황으로 전력보급률은 약 50%이며, 전체 인구의 52.4%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미얀마의 낮은 전력보급률은 제조업의 발달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국경 지역에는 국가전력망 부재로 독립전력망을 사용
- 세계은행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얀마의 월평균 정전 횟수는 13.3회에 달하며 정전 지속시간도 8.6시간으로 조사됨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얀마의 연간 전력수요가 연평균 13%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37,000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높은 전력손실률 및 수력에 의존한 전력생산

- 미얀마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전력 대부분의 생산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건기(12월~4월)와 우기(5월~11월)가 뚜렷한 계절적 특성으로, 건기에는 수력발전량이 줄어들어 전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2013년 미얀마의 전력손실률은 26.7%로, 주변국인 베트남(8.9%)과 인도네시아(9.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 발전소가 대부분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데 반해, 전력 수요가 높은 곳은 남부의 양곤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임

- 미얀마 정부는 수력 발전의 용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3배인 9GW로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며, 수력은 지속적인 핵심 전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

□ 산업용 전력공급 환경 조성 필요

- 2014년 기준으로 미얀마의 전력 소비 용도는 주거용 41.0%, 산업용 17.5%로, 주로 주거용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산업용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산업용으로 적절히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함
- 미얀마 기업들은 부족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전기를 보유하거나 공유하는 상태임

□ 과도한 수출중심 전략으로 미얀마 내 에너지 부족 문제 발생

- 천연가스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83.5%를 수출하여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내륙의 가스 수송망이 매우 열악하여 자국에는 산업용 가스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음
- 초기 미얀마 군부는 원유와 가스로부터의 수익을 경제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나, 과도한 수출중심의 전략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됨

□ 전력보급률 지속 향상을 위해 노력 중

-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전체 1,087만 가구 중 2019년 12월 말까지 544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력보급률은 50.9%에 이르게 될 예정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반 동안 전력 분야 투자금액은 9,170억 짜트에 달하며, 전력보급률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전력에너지부(MOEE) 장관은 국가 전력 보급률이 50%를 달성했으며, 2021년도 55%, 2025년도 75%, 2030년도 전력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부단히 노력 중임을 강조
- 현재 미얀마의 총 발전량은 3,798MW 수준이며 이 중 1,548MW 이상이 양곤시에서 소비
 - 급증하는 양곤시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알론(Ahlon) 151MW 복합 화력 발전소, 탄윈(Thanlyin) 350MW LNG 발전소, 타케타(Thakayta) 400MW LNG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모두 2020년 5월 완공 예정

나. 전력에너지 관련 이슈

□ 연내 5,080개 마을 전기 공급 계획

- 세계은행(World Bank) 지원으로 추진 중인 국가 전력화 계획(NEP)의 전력망 확충사업을 통해 만달레이, 양곤, 예야와디 등에 위치한 5,080개 마을이 전기 공급을 받게 될 예정
- 전력화 프로젝트 보조금 4억 달러 중 3.1억 달러는 국가 전력화 계획(NEP)에 투입되고, 나머지 9,000만 달러는 농축산관개부가 추진하는 오프 그리드 농촌 전력사업에 배정됨
- '19년 1월 말에 체결된 국가 전력화 계획(NEP) 2차 사업 계약에 따라 국가 송전망 반경 5마일 이내의 사가잉, 마궤, 친, 산 등의 8,537개 마을이 전기 혜택을 받게 될 예정

□ 사가잉 지역, 수력 발전소 건설추진

- 사가잉 지방정부는 지난해 호말린(Homalin) 타운십, 카니(Kani), 난온(Nanyon) 타운십에 3개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호말린 타운십 인근 지역에 200억 짜트 규모의 난판가(Nantpanga)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 발전 용량 4MW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방정부 예산 60억 짜트 배정

□ 5년 만에 이루어진 전기료 인상

- 미얀마의 전기료는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 충당의 한계성을 보여왔음
- '19년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사상 초유의 계획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19년 6월 25일 5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료 인상을 발표하며, '19년 7월 1일부터 인상을 시행함
-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 신규 요금체계에서 가정용과 종교 시설은 30단위까지 기존 요금체계와 동일한 단위당 35짜트가 부과되지만, 31~50단위 50짜트, 51~75단위 70짜트, 101~140단위 110짜트, 201단위 이상 125짜트 등 사용 구간 부분이 세분화되고 그 인상 폭도 달라짐
- 전력에너지 업계 관계자 및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등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임

□ 전기차 상용화 추진

- 정부는 총 49개소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PPP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충전소는 전기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 차량도 사용 가능하며,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에 4곳, 양곤 36곳, 네피도 5곳에 설치될 예정임

□ ADB 자금 지원으로 2022년까지 다웨이 특별경제구역 전력망 확충 계획

- 다웨이 특별경제구역(SEZ) 관리위원회는 향후 2~3년 내에 다웨이 SEZ와 국가 전력망 연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중이며, ADB의 자금 지원으로 SEZ에 300M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프로젝트 1단계인 2021-2022년까지 몰라마인, 다웨이 지역에 송전망을 연결할 계획이며, 향후 타닌타리 전 지역에도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다웨이 지역을 비롯한 탄닌타리 전체가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
 - 다웨이 SEZ 전력공급을 위해 중국의 National Technical Import and Export Corp(CNTIC)가 LNG 공급 의사를 밝히는 등 중국 기업들의 다웨이 SEZ 발전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짜옥푸(Kyauk Phyu) 발전소와 전력구매협정 체결(2019.11.6.)
- MOEE 산하 전력 공기업인 Electric Power Generation Enterprise(EPGE)는 11월 5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중국 합작 기업인 'Kyauk Phyu Electric Power Co'와 전력구매협정(PPA)을 체결
 - Kyauk Phyu Electric Power Co는 미얀마 Supreme Group과 중국 국영 Power China의 합작회사로, 라카인 주 짜옥푸 소재 발전소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건설 예정
 - 발전소 설비 용량은 146MW이지만 135MW로 운영될 예정이며, 짜옥푸 타운십 소재 230KV 변전소와 연결 계획
 - 건설 사업비는 2,733억 짜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발전 시작 예정
 -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 구매에 따른 지불 통화는 짜트화로 합의됐으며 구매 가격은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만 언급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
 - 정부는 짜옥푸 발전소 프로젝트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한 축인 미얀마-중국 경제회랑*(CMEC)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간주하여 CMEC 프로젝트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음
- * 경제회랑: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의미하며, 중국은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임(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재생에너지

가. 태양광에너지

-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단기 전력난 대안으로 제시
 - IFC는 11월 '미얀마 분산형 발전 범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발전 방법 다양화, 전력 수급 격차해소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가능성을 강조
 - 분산형 발전형태인 태양광 발전 솔루션은 미얀마 기업들이 전력 비용 및 기후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설비는 가격경쟁력과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설치 소요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고 평가
 - 현재 기업들의 필요한 전력 10% 정도를 담당하는 백업용 디젤 발전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이 심한 반면, 태양광 발전은 하절기 기후적인 요인으로 수력 발전량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
 - 현재 미얀마에 설치된 태양광 프로젝트는 상업 및 산업용을 모두 합해 700MW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얀마 기존 발전용량의 약 10%에 해당
 - 한편 IFC는 Lighting Majoria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사용하여 2년간 국가 전선망 연결이 불가능한 외곽지역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3. 기후변화

- 미얀마, 기후변화 취약국 2위
 - 기후위험지수에 의하면 미얀마는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남
 - 더딘 경제발전과 농업으로 집중된 산업구조에 기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이나, 에너지원 중 하나인 바이오매스에 소요되는 불법적인 벌목으로 인해 매년 400,000ha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음

4. 시장현황 및 분석

가. 시장현황

□ 화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전환

-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기존 정권에서 승인한 일부 화력발전 프로젝트 진행 중단
- 삼림 파괴 및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로 인해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방향 전환
 - 미얀마 농림축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of Myanmar) 산하의 농촌 개발국(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에서는 전력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2개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 현황 및 계획

- 2016년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는 5년 계약의 양곤 강변 디젤 화력 발전소(설비용량 300MW) 비상 발전 계획 프로젝트 입찰을 공고, 미국 APR과 미얀마 National Infrastructure Holdings의 컨소시엄이 낙찰 받았으나, 계획이 중단됨
- 2016년 터키 Karpowership과 300MW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고, 부유식 발전소가 2017년 4월 양곤에 도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2017/18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프로젝트가 폐기됨
- 2019년 5월 초, 미얀마 정부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LNG 발전 바지선을 이용한 1,400MW 발전 계획에 대한 입찰 계획 도 발표

[참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예정지: 양곤 필라와, 에야와디 바테인, 라카인 짜옥푸
- 2020년 4월 이전 설치 완료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입찰 자격 제한
- 100~200MW 규모의 온 그리드(On-Grid)* 태양광 PV 프로젝트 입찰 실시 계획

*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On-Grid):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외부의 전력망과 연결

□ 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연

- 2018년 1월 말 정부는 4개 국제 컨소시엄에 총 3,000MW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에 관한 착수 지시서(NTP, Notice to Proceed)를 발급하고 2020년 중반까지 완공을 목표로 함
 -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이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LNG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했던 MOEE 장관 경질설까지 회자되고 있음
 - LNG 프로젝트의 지연 사유는 크게 공급 가격, 결제 통화, LNG 가격 책정 기준 및 정부 보증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LNG 프로젝트의 발전 비용이 다른 발전 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는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와 전력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정부는 결제 통화를 짜트화로 고수하고 있지만, IPP는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달러화 결제를 요구하고 있음
- * 헷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참고] 타닌타리 지방 칸복 LNG 프로젝트

- 프랑스 토탈과 독일 지멘스의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 타당성 분석 및 환경 및 사회적 영향평가(ESIA)가 완료되었으나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양곤 지방 전력 공급을 위해 '칸복-빠야지'간 450km에 달하는 500kV 송전선 건설 비용(5억~10억 달러 상당)이 발목을 잡고 있음
- 컨소시엄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kV 송전선 라인 건설 대신 기존 송전 라인 활용 방안 및 1단계 발전용량 축소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개정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정부는 프로젝트 수정안 채택은 불가하며 협상이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중단 혹은 취소 가능성을 언급함

나. 시장분석

□ 전력시장 진출 기회 요인

- 미얀마 전력공사(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에 따르면, 건기에는 일일 평균 5kWh/m² 이상의 일조량이 기록되어,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얀마의 전력시장은 미얀마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원의 활용을 통해 한-미얀마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원유와 천연가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제 및 화학 등의 기술 도입이 필요하기에, 선진화된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미얀마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2030년까지 전기보급률 100% 달성 목표를 고려할 때, 정제 및 화학산업이 발달한 한국기업에게 기회요인임
- 에너지 통합기구의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감소
 - 기존 에너지원별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인한 혼선 해소
 - 미얀마 시장 진출 시 협상의 대상과 범위가 줄어들고, 의사결정 시간 단축 예상
- 월드뱅크(WB)는 미얀마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연간 11% 증가할 전망 이므로, 정부는 발전 부문 개선에 3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전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전력수요 예측: 2025년 8.6GW, 2030년 12.6GW
 - 이를 위해 연간 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발전 비용 손실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 전력시장 진출 위험요인

- 미얀마는 에너지 개발이 국영기업에 의해 진행되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큰 수준임
 - 미얀마는 전력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 및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력생산량 또는 지분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
- 높은 전력손실률과 낮은 전기보급률로 인한 원가상승
 - 전기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력 그리드 확충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향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속 발주 예상
 - 미얀마 정부는 예산 부족 및 환경문제로 인하여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대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선호
 - 미얀마 내 전력공급이 중단된 소규모 마을과 공공시설이 다수 존재하므로, 소규모 독립 발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요구 기술조건 충족과 입찰가격이 가장 중요하며, 미얀마 또는 주변국 유사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
 - 프로젝트 담당자에 따르면 기술조건과 발전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입찰 안내문은 KOTRA 양곤무역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경우 개별 제공 가능

다. 시장 진출 전망

- 외국인투자 증가와 함께 개방정책에 따른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기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 현재 20개의 수력발전소에서 전체 소비전력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는 1개에 불과하나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계획임
 - 매년 10월~5월까지 6개월에 달하는 건기에는 수력발전이 불가능하므로, 화력 및 천연가스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한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
- 단기간에 설치 가능한 5~1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시장에 진출 유망
 - 단기적으로는 급증하는 외국기업들과 도시인구 때문에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에 설치 가능한 5~10MW 규모의 태양광 패널 시장에 진출이 유망함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소요되며, 미얀마의 낮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제3장 환경기관, 법, 정책

1. 환경기관
2. 주요 환경법 및 정책

I 환경기관

1. 정부 기관

가. 자연환경부

□ 개요

- 국문명칭 : 자연환경부
- 영문명칭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MONREC
- 기관개요
 - 2016년에 설치, 6개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얀마 환경정책 수립, 산림자원 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
 - 환경 관련 입법 및 규제 수립 등의 업무수행

□ 주요기능

- 산림자원의 관리·보존, 야생동물 보호, 환경정책 수립 등 수행
- 단일법으로 환경보전법, 그 하위법령으로 환경보전규정을 제정

□ 조직도



|| 그림 3-1 || 자연환경부 조직도

컨택포인트

이름 : Sein Htoon Linn
직책 : Deputy Director General
연락처 : (+95)-67-431323
이메일: linn.ecd.myanmar@gmail.com

이름 : Min Maw
직책 : Director
연락처 : +95-9-425275361
이메일: mingmaoforester@gmail.com

나. 환경청

□ 개요

- 국문명칭 : 환경청
- 영문명칭 :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ECD
- 기관개요
 - 2012년 자연환경부의 전신인 환경보전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의 소속기관으로 환경행정 업무를 시작하였고, 당초 4개과 400여 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11개과 800여 명까지 확장됨
 - 열악한 재정으로 주요사업은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미얀마의 경직된 상하관계로 인하여 환경청 청장은 자연환경부 장관과 차관에게 절대복종하는 관계에 있음

□ 주요 기능

- 환경보호를 감독하고 물, 대기 등의 환경오염을 규제
- 환경규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침 및 절차, 기후변화 완화·적응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제정
- 미얀마 환경청은 2018-2019년도의 기본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 환경, 국토, 물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 / 국민의 환경보전 참여 / 환경 분야 능력배양 / 환경과 개발의 조화
- 환경청의 주요 사업내용

- 환경 행정업무: 환경 인력을 구 타운십까지 배치하여 환경 행정업무를 담당토록 함
- 환경정책 및 법령: 주요 국가환경정책의 공식 채택(국무회의 의결), 환경 기준 결정, EIA 규정 채택 등
- 환경오염 방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환경오염 측정 시스템 구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및 수은 오염 대책 추진
- 환경영향평가 강화
- 기후변화 및 오존: UNFCCC 보고서 작성·제출 등

□ 조직도

- 청장과 2명의 부청장, 11개 과장, 그리고 15개의 지방환경사무소가 있음
- 현업 부서에 해당하는 과는 오염방지과(Pollution Control Division)와 환경영향평가과(EIA Division)가 있고, 조직관리, 예산관리, 환경정책,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로 구성됨



|| 그림 3-2 || 환경청 조직도

다. 도시개발위원회

□ 개요

- 도시개발위원회는 미얀마 내 양곤시, 네피도시, 만달레이시 3개 도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도시개발위원회는 도시의 경제발전을 총괄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정부는 포괄적 정책과 전략 개발 등을 수행하며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에 대한 규정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국가 법령, 로드맵 등은 정부 부처가 주도하지만, 자체 폐기물 관리전략 및 마스터플랜 개발 등은 각 도시개발위원회가 주도함

① 양곤 도시개발위원회(YCDC)

□ 개요

- 국문명칭 :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 영문명칭 :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YCDC
- 홈페이지 : www.ycdc.gov.mm
- 기관개요
 -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인 양곤의 행정기관으로, 행정부, 환경보호청소부 등 총 20개 부서로 구성
 - 1990년 양곤시 개발법(Yangon City Development Law)에 따라 설립되어,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매립지 관리,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를 포함한 환경보호 업무수행

□ 주요기능

- 급수 및 위생 시스템의 제공
- 토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물 유산의 보호, 건설현장 규제
- 소방 관리와 자연재해 방지를 통한 시민의 안전 보장
- 기타 환경서비스 관련 업무 등

□ 조직도



|| 그림 3-3 || YCDC 조직도

컨택포인트

이름 : Aung Myint Maw
 직책 : Director
 연락처 : +95-9-5187854
 이메일: amMLEeYcdc@gmail.com

② 네피도 도시개발위원회

□ 개요

- 국문명칭 : 네피도 도시개발위원회
- 영문명칭 : Napyitaw City Development Committee, NPTDC
- 홈페이지 : www.nptdc.gov.mm
- 기관개요
 - 네피도 행정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부, 환경보호청소부(PCCD) 등 총 18개 부서로 구성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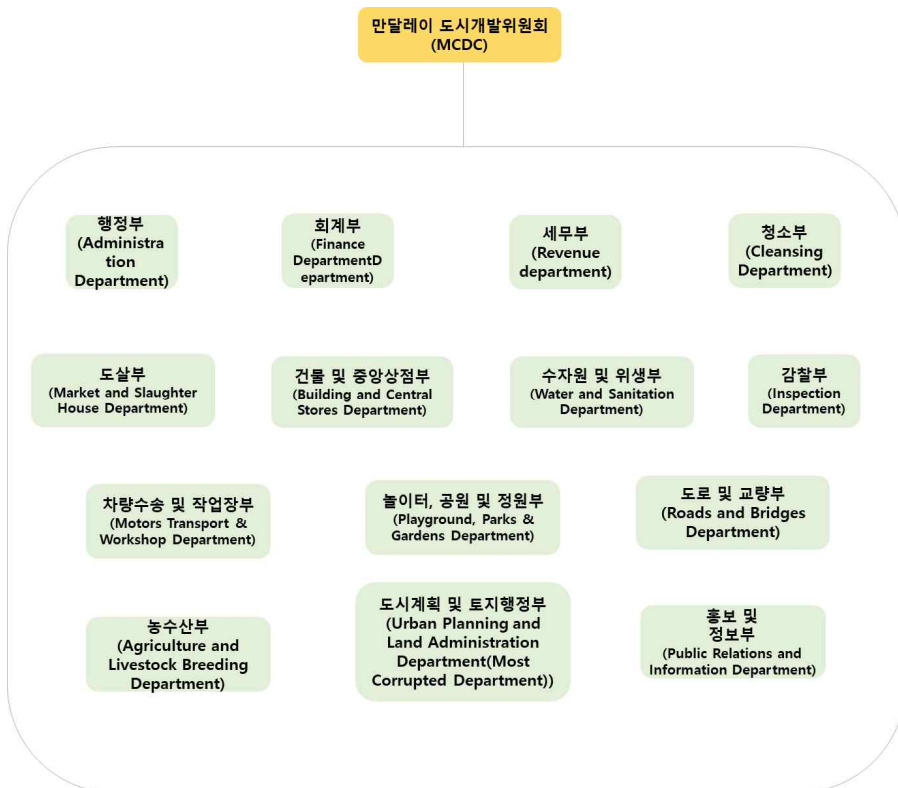
■ 그림 3-4 ■ NPTDC 조직도

③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

□ 개요

- 국문명칭 :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
- 영문명칭 :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MCDC
- 홈페이지 : www.facebook.com/MCDCIT
- 기관개요
 - 1992년 만달레이 도시 개발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행정부, 환경보호청소부 등 총 20개 부서로 구성
 - 만달레이 행정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토지 관리,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 ‘깨끗한 도시 유지, 아름다운 도시 건설,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 제공’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조직도



|| 그림 3-5 || MCDC 조직도

라.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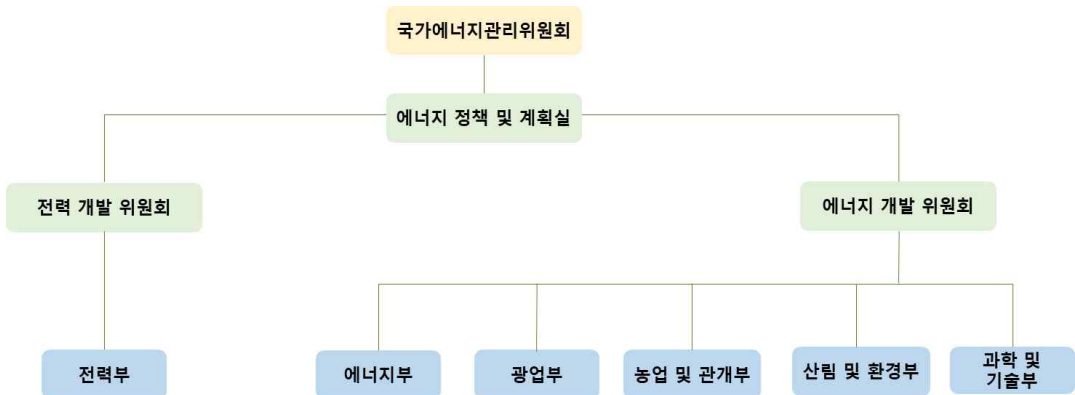
□ 개요

- 국문명칭 :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 영문명칭 : National Energy Management Committee, NEMC
- 기관개요
 - NEMC는 장관급 위원회로 부통령 산하기구이며, 에너지 정책과 계획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내 다른 기구들과의 조정 및 협의를 담당

□ 주요기능

- NEMC 산하 조직은 미얀마 내 에너지 정책 및 전력 부문을 총괄하는 전력 개발위원회, 전반적인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에너지 개발위원회로 분류되며 에너지 개발위원회 산하에 미얀마 에너지부가 위치

□ 조직도



자료: 미얀마 에너지 현황 및 정책, 한국에너지공단

■ 그림 3-6 ■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조직도

마. 국가수자원위원회

□ 개요

- 국문명칭 : 미얀마 국가수자원위원회
- 영문명칭 : National Water Resource Committee, NW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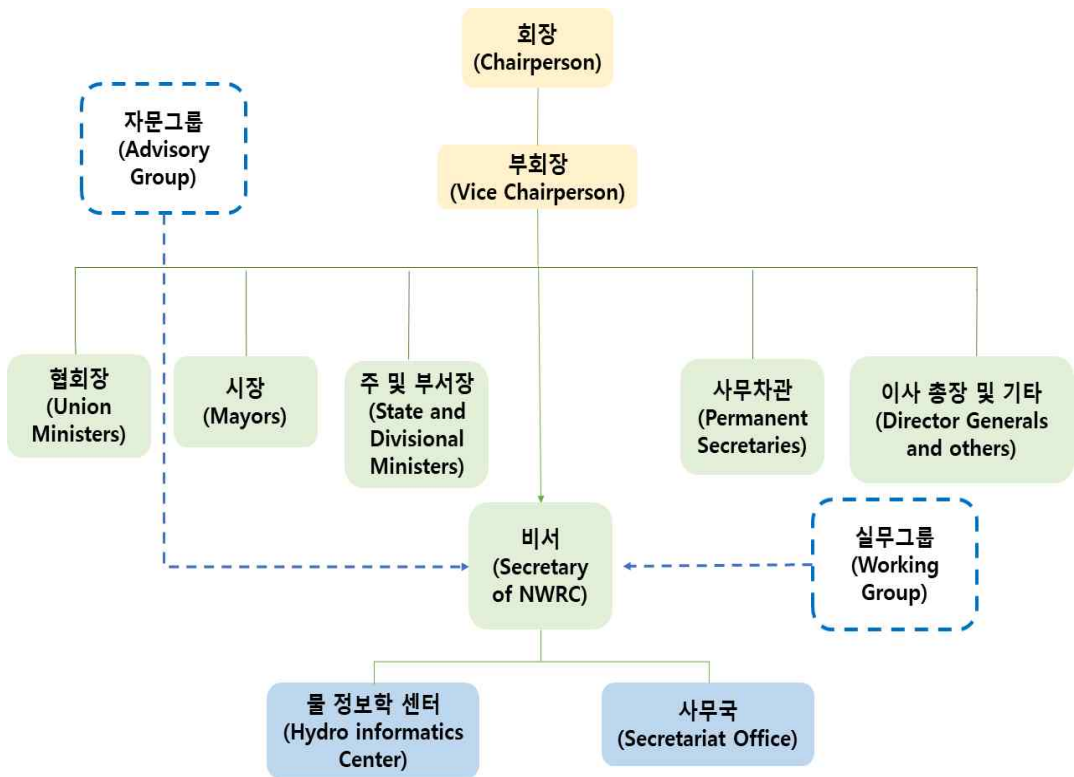
○ 기관개요

- 2013년 6월에 설립하였으며, 수자원 정책을 집행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미얀마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최고정책기구
- 조직은 미얀마 수자원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양곤·네피도·만달레이 시장 등으로 구성

□ 주요기능

- 국가수자원 관리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전략 및 정책 수립
- 수자원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도모
- 수자원 신탁 기금 조성

□ 조직도



┃ 그림 3-7 ┃ 국가수자원위원회 조직도

다. 기타 환경 관련 부처

□ 개요

- 미얀마는 2012년 환경청 신설 이전 환경업무를 담당해왔던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업무를 환경청에 이관하지 않아, 현재도 많은 환경업무가 다른 부처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기관 수행업무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환경협력 추진
- 농업관개부 : 농업용수(하천 및 호수) 수질측정관리
- 산림국 :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 관리, 토양 오염관리 등
- 보건부 : 음용수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등
- 공업부 :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수 처리
- 내무부 : 해양오염 관리
- 도시개발위원회(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 관할 시의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관리
- 교통통신부 : 하천 수질측정(기상국 및 수로국)
- 광업국 : 광산오염 관리

2. 유관기관

가.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 영문명 :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홈페이지 : www.umfcci.com.mm

□ 기관개요

- 1919년에 설립된 NGO 단체로, 소속 단체 76여 개, 회원 수 35,000여 명을 보유함
- 미얀마 군부 지주회사 중 영향력이 막강한 기관 중의 하나이며, 미얀마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주요사업

- 무역박람회, 비즈니스 매칭 등을 수행
- 비즈니스 전략, 교육, 컨설팅 등으로 기업들의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컨택포인트

이름 : Cho Thet
직책 : Staff
연락처 : (+95)-9-459720447
이메일: chothetz@gmail.com

나. 미얀마 엔지니어링협회(MES)

- 영문명 : Federation of Myanmar Engineering Societies
- 홈페이지 : www.mes.org.mm
- 기관개요 :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800여 명의 엔지니어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사업 :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 기업이익 대변 등 수행
- 협력 수요
 - 소음·진동 측정 장비
 - 수질·대기 등 모니터링 장비
 - 양곤시의 그린빌딩 정책에 따른 친환경 제품 및 기술
 - 소음·진동 전문가 파견 식의 기술교육 등

컨택포인트

이름 : Soe Myint
직책 : Secretary General
연락처 : (+95)-1-580620
이메일: sm260859new@gmail.com

나. 미얀마 산업협회(MIA)

- 영문명 : Myanmar Industries Association
- 홈페이지 : www.myanmarindustries.org

- 기관개요 : 1995년에 설립된 미얀마 산업체들로 구성된 협회
- 주요사업 : 외국기업과 미얀마 현지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업모집, 미얀마 산업 뉴스레터 발행 등
- 협력 수요
 - CO, CO₂, SO₂ 등 대기오염 측정 장비
 - 환경관리계획(EMP) 관련한 정보 및 지식 제공

컨택포인트

이름 : U Tin Hlaing
 직책 : Joint Secretary General
 연락처 : (+95)-1-2314830
 이메일: mparamitinhlaing@gmail.com

3. 기타 진출기업

가. 미얀마 경영연구소(MBRI)

- 영문명 : MYANMAR BUSINESS RESEARCH INSTITUTE
- 홈페이지 : www.mbrinews.com
- 기관 개요
 - 미얀마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및 타국 기업에 미얀마 산업 및 사업환경 분석보고서 서비스 제공
 - 미얀마 사업환경을 둘러싼 정치, 사회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전문적 정보 제공 및 자문 서비스
 - 개발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CDM 사업 컨설팅 등 진행

컨택포인트

이름 : 김정희
 직책 : 연구소장
 연락처 : (+95)-97-9900-1383
 이메일: jerrykim.jh@gmail.com

II 주요 환경법 및 정책

1. 주요 환경법

□ 개요

- 환경관리에서 단일 환경법(ECL)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으로 환경보전 규정(ECR), 환경영향평가(EIA) 규정, 국가환경기준지침 등이 있음
- 미얀마 환경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음
 - 경제개발과 병행한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제정
 -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에 대한 검토 및 수정
 - 산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 대기 및 수질오염 감소, 산업폐기물 통제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 국민과 사회조직의 참여 확대

가. 환경 관련 부처 법령

□ 환경보전법(ECL,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개요

- 국가환경정책(NEP)의 법적 이행을 위한 틀로, 2012년에 제정됨
- 자연환경부(MONREC) 내에서 환경보전 관련 부처와 이들의 책임을 규정함

○ 주요 내용

- 환경오염 제어 장비의 설치 등을 통해 규정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공해 유발기업의 의무 규정
- 유해 폐기물의 범주 및 분류, 친환경 장비 설치, 폐기물관리 등을 다룸

□ 환경보전규칙(ECR, 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 개요

- 오염 감소, 환경보전의 촉진을 위해 2014년에 수립되었으며, 환경보전법(ECL)의 하위법령임

○ 주요 내용

- 자연환경부(MONREC) 및 환경보전위원회(Environmental Conservation Committee)의 역할과 책임 설명
- 9장에서는 유해 폐기물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와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며, 13장에서는 담당 부처의 허가 없이는 규정된 유해 폐기물 또는 물질을 방출·폐기 및 저장할 수 없으며, 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

□ 환경영향평가 규정(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 개요

- 자연환경부의 전신인 환경보전산림부(MOECAF)에서 2015년에 제정

○ 주요 내용

- 프로젝트 제안자는 환경영향평가(EIA)를 시작하기 전, EIA를 관할하는 제3자 또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EIA) 허가를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제안자는 스코핑*에 근거하여 작성된 과업지침서(ToR, Terms of References, 이하 'ToR')를 받고 15일 이내에 검토 및 수정을 진행해야 함

* 스코핑(Scoping):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평가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

- EIA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요약/소개
- 정책, 법률 및 제도적 틀
- 프로젝트 설명 및 대안* 선택
 - * 프로젝트 단계에 따른 대안(사전 건설, 건설, 운영, 해체 등)
- 주변 환경 설명(기후, 토양, 인프라 및 서비스 등)
- 위험평가, 완화조치(방법론,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등)
- 누적영향평가
- 환경관리계획
- 공공상담 및 공개(방법론, 상담결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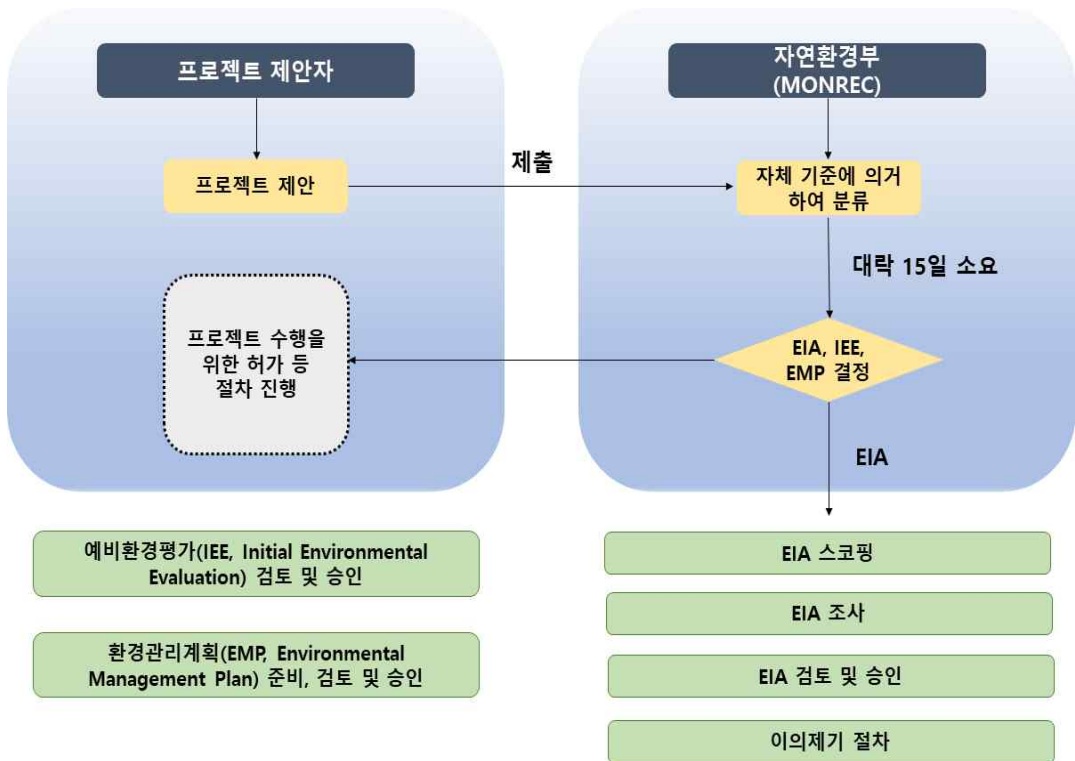


그림 3-8 프로젝트 분류(EIA, IEE, EMP)

- 수자원 및 하천보호(The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s and Rivers Law)
 -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수자원 및 하천 시스템의 보존과 보호를 통하여 공공 사용자에게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함
 - 하천을 활용한 선박의 운항, 수자원 및 하천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경제 발전 등을 추구
 - 수자원, 하천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 인근 지역에서의 건설, 어업, 항해, 그리고 하천의 흐름을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
 - 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교통부 또는 수자원 및 하천시스템 개선위원회 (DWIR, Directorate of Water Resources and Improvement of River System)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NSDS,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 개요

-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작성
-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환경, 경제 및 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 이 전략은 폐기물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개인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 NSDS는 "미얀마 국민을 위한 안녕과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목표를 세움

표 3-1 NSDS의 목표

구분	내용
목표 1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목표 2	통합 경제개발
목표 3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

자료: KEITI-WB Report Final

나. 도시별 환경법

□ 양곤시

표 3-2 양곤시 환경 관련 법

도시명	법률명	내용
양곤시	양곤시 개발법	- 환경 위생, 대기 및 수질오염 및 공중보건과 관련 조항
	지하수개발법 (1930)	- 이 법은 1개 지역에만 적용되며, 연방 의장이 정하는 깊이를 초과하는 지하수관에만 적용 가능 - 단, 지역마다 지하수 관정 깊이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수력법 (1927)	- 모든 공공수 사용에 필요한 면허 처방, 오염 및 공공수의 흐름 방해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
	양곤시 지방자치법 (1922)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료의 역할 및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세금, 벌과금 등 재정 문제를 규정
	양곤시 수도법 (1985)	- 수도공급업체와 사용자에게 관한 규칙과 의무를 규정

자료: KEITI-WB Report Final

□ 네피도시

표 3-3 네피도시 환경 관련 법

도시명	법률명	내용
네피도시	네피도시 개발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피도 개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위생, 청결, 쾌적함, 미용, 녹지화, 생체 관련 작업 - 환경보호 작업 - 화재, 홍수, 폭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 묘지, 화장용 건물의 파악 및 철거, 화장터 관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 업무 - 개발 업무와 관련한 세금의 종류, 부과 대상 및 세율의 결정 및 해당 세금의 개정, 평가 및 징수 - 국내 및 해외 조직 혹은 개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개발 업무

자료: KEITI-WB Report Final

□ 만달레이시

표 3-4 만달레이시 환경 관련 법

도시명	법률명	내용
만달레이시	MCDC 법안(2015)	- 24장: 위원회가 정한 규격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폐수를 하수구, 하천 및 농경지로 폐기 및 배출할 수 없음
	만달레이시 개발법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달레이시에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됨 -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규정

자료: KEITI-WB Report Final

2. 환경 관련 주요정책

가. 정부 주요정책

□ 국가환경정책(NEP,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 개요

- 건강한 생태계와 깨끗한 환경,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 추구
- 미얀마의 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수립
- 녹색경제개발, 기후변화 및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실행계획 포함

○ 주요 내용

- 원칙
 - 깨끗한 환경과 건강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생태계
 - 지속 가능한 개발
 - 중심적 정책은 환경보호 및 관리
- 경제 및 사회발전의 촉진, 빈곤의 감소,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영향 완화 등 환경관리를 중앙 의제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가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7번, 13번 원칙은 폐기물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7번 원칙은 고체 폐기물관리 및 폐수처리 측면에서 도시·농촌 모두의 인프라 및 혁신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원공급에 대한 자원 효율적이고 무해한 접근을 다룸
- 13번 원칙에서는 오염원과 폐기물을 회피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개선 조치의 수행보다 비용 효율적이므로 더욱 좋다는 것을 권고함

□ 환경관리계획(EMP,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 2018년 1월 10일 ‘고시 제03/2018호’에 따라 9개 부문 공장의 EMP 제출 의무화
- 9개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공장들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환경부(MONREC)에 EMP를 제출하고 환경준수인증서(ECC,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를 발급받도록 명령
- 9개 EMP 제출 대상 부문: 증류주, 발효주, 맥주/식음료 가공/농업용 화학 제품/시멘트, 석회/직물 및 염색/주조 및 정련/제혁/펄프 및 종이 제조/설탕 제조 등
- 800여 개 대상 회사 중 11개사만 기한 내 EMP를 제출함
- EMP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공장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9일경, 통지서를 발행하고 6개월 이내에 EMP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장법, 규칙 및 절차 또는 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

□ 국가 수자원 정책

○ 개요

- 미얀마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통합 정책
- 국가수자원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국가 수자원 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얀마 수자원 관리지침(NWFD, National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채택

〈미얀마 수자원 관리지침(NWFD)〉

- (1) 양호한 수질: 깨끗하고 충분한 양의 지하수 및 지표수 확보
- (2) 물 예산: 현재 관찰되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학 및 기상학적 요소들을 고려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2020년까지 지하수는 '양호한 수준의 양 및 화학적 기준(비오염성)'을 달성해야 할 것임. 지하수 상태 분류는 현 상태에 따라 '양호' 및 '부적격' 기준으로 평가
- (3) 생태학적 및 화학적 수준: 지표수의 생태학적 및 화학적 수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 생물학적 수준(어류, 해저 무척추동물, 수생식물), 유체 형태학적 기준(강 유역, 하천 제방구조, 치수사업, 강 연결성 및 강바닥 기질), 물리 화학적 기준(온도, 산화 및 영양분 상태)
- (4) 중앙정부와 주/지방정부 간 협력: 지방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촉구
- (5) 강 유역 공간 관리: 미얀마 주요 강 유역들은 명확한 지침 및 구체적인 시행기간 안에 달성 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는 유역개발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10년 단위로 갱신
- (6) 해진*: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으로 인한 강수 이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강 유역 수자원관리 원칙과는 상반되어 비판을 받고 있기에, 동 사업들은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

* 해진: 해수면의 상승이나 지반의 침강에 의하여 육지 위로 해수가 침입하는 현상

자료: 미얀마, 물산업 진출전략(KEITI)

○ 목적

-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 물 정책 마련
- 물 관리 최고정책기구 구성
- 물 분야 투자 및 수자원·주요 강 유역 관리
- 국경을 통과하는 수로 활용 정책 마련

○ 기본원칙

- 수자원 계획, 개발 및 관리는 경제성, 환경지속가능성, 사회적 포괄성을 포함
- 물 순환 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성 고려
- 수자원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확보, 객관적 기준 마련, 데이터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양호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 수자원 활용의 평등성, 사회적 정의 및 지속가능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자원을 배분하며,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국민 생활 수준 증진에 기여
 - 수자원 분배 우선순위는 식수확보가 최우선이며 생활용수 공급, 식량,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및 기타 사용 순임
 - 수자원의 질과 양은 통합된 방식으로 관리
- 주요 전략
- 수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수요견인 방식 적용
 - 지하수 추출을 위한 토지사용계획 보장
 - 효과적인 가정용수 공급방안 마련
 - 습지를 포함한 모든 수자원 보호
 - 오염자 비용부담원칙 적용

제4장 진출환경 및 전략

1. 진출환경 및 사례
2. 진출전략 수립
3. 결론

I 진출환경 및 사례

1. 진출환경

가. 제도변화

□ 온라인 회사등록제 시행

- ‘2018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2018년 8월 1일부터 모든 회사들은 MyCO(Myanmar Companies Online Registry)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 이 법에 따라 기존 회사들의 등록 마감 시한인 2019년 1월 31일까지 46,377개 기업이 재등록한 것으로 알려짐
- 이 기간 내 재등록하지 못한 1만여 개 회사들은 등록 폐지 수순을 따르고, 등록에 실패한 회사들 중 회사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경위서 제출과 벌금이 부과됨
- 2019년 11월 30일 기준, 재등록 회사 46,377개와 그 이후 신규 등록한 회사 2만여 개 등 총 6만 7천여 개 회사들이 MyCO에 등록했으며, 매월 1,000여 개의 회사들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의할 점
 -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얀마에 진출하지 않은 회사도 위장 설립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회사에 대한 근거서류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춰놓을 필요가 있음
 - MyCo System상의 등기를 신뢰하지 말고, ‘MD의 대표성, 이사의 수권, 자본금의 출자여부 확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정관검토’ 등 근거서류 재확인 필요

□ 사업별 법적 규제 검토

○ 제조업

- 규제법률: 미얀마 투자법, 회사법 등

- 미얀마 투자법상 투자허가 대상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대상
- 또한, 환경,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대상일 경우가 많음
 - 투자인가는 빠른 승인 프로세스로 인가 소요기간 등이 단축

○ 수출입/유통업

- 규제법: 미얀마 투자법, 상공부의 수출입업 관련 공고
- 상공부의 독자적인 규제 영역과 외국인의 경우 MIC 투자허가가 필요

표 4-1 상공부 공고상 도소매규제 정리

	도매업	소매업(편의점 제외)
100% 외국인 회사 및 미얀마 지분율 20% 미만의 합작회사		
초기 투자금	5백만 달러	3백만 달러
MIC 투자허가 혹은 인가	필요	필요
유통업 등록 의무	필요	필요
합작회사(미얀마 지분율 20% 이상)		
초기 투자금	2백만 달러	7십만 달러
MIC 투자허가 혹은 인가	필요	필요
유통업 등록 의무	필요	필요
100% 미얀마 법인		
초기 투자금	투자금 제한 규정 없음. 다만, 초기 투자금이 7십만 달러 이상인 경우 무역업 등록 의무 있음	

자료: 법무법인 리우, 사업분야별 진출 방법 및 법적 규제

나. 진출 시 유의사항

□ 회사 및 지점 설립 시

○ 수권서류 구비 문제

- 이사회결의 등의 구체적인 구비방식은 본사의 준거법에 따름
- ‘설립행위, 설립 이사 임명,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인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

○ 임명의 수권서류 구비 문제

- 설립 시 이사의 경우, 별도의 수권행위 불요
- 설립 시 이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수권 필요

-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는 회사법상 선임이 가능하고 이사의 권한 수권 가능
- 그러나, 상무이사(Managing Director)라고 표시한다고 대표성이나 업무 집행 권한은 없으며, 등기상의 명칭이 아님
- 주식자본금 개념 이해
 - 주식자본금(Share Capital) = 발행 주식 수 X 주당 발행가격, 즉 주식 발행을 전제로 함
 - 납입된 주식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입자본금과 차이가 있음
 -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주식자본금을 등록할 시, 미납입 주주의 지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주식발행의 수권 문제
 - 설립 시 주식발행의 경우, 별도의 수권은 필요 없음
 - 설립 이후 주식 추가발행의 경우, 이사회결의 수권 필요
- 주금 납입의 문제
 - 주금납입증명 제도가 없으며, MyCo System 상 납입 증명 공시 효력이 없음

□ 설립 이후 회사 관리 시

- 회사 등기상 변경사항 발생 시, 주주총회결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근거서류 자체 구비 필요
- 회사 장부 보관 의무,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대한 신고의무 등의 강화됨

다. 투자환경

□ 미얀마에서의 합작 투자

- 라이선스/사업권을 보유한 상대방과 사업을 협력하여 대관업무 기대
- 미얀마 투자법 제42조 (C)항,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MIC공고 15/2017에 따라 합작 강제사업은 미얀마 내국인의 지분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표 4-2 | 협력이 강제되는 사업(MIC 공고 15/2017)

사업활동종류	
1	수산물 경매장 및 수산물 하역장의 건설 및 설치
2	축산 및 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3	수의사업(Veterinary clinic)
4	곡물의 재배, 국내 유통 및 수출
5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6	국내 천연자원을 재료로 한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가연성 고체·액체·가스 및 연무제(aerol)(아세트레린, 가솔린, 프로판, 헤어스프레이, 향수, 데오도란트, 살충제)의 제조, 유통 및 판매
8	산화 화학제품(산소, 과산화수소), 압축가스를 방출하는 제품(아세톤, 아르곤, 수소, 질소, 아세틸렌)의 제조 및 판매
9	부식성 화학제품(황산, 질산)의 제조 및 판매
10	각종 공업용 화학 가스(압축형, 액체형, 고체형)의 제조 및 판매
11	비스킷, 웨이퍼, 각종 면(noodles), 베르미첼리(vermicelli) 및 기타 곡류 관련 식품 등 농업기반 식제품의 생산 및 국내 판매
12	사탕, 코코아, 초콜릿 등 각종 과자류의 생산 및 국내 판매
13	우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식제품의 생산, 통조림 제조 및 판매
14	맥아(malt), 맥아주류(malt liquors) 및 비탄산음료의 생산 및 판매
15	스피릿츠,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무알코올의 제조, 블렌딩, 증류, 보틀링 및 판매
16	각종 정제 얼음 제품의 생산 및 판매
17	생수 제조
18	각종 비누의 제조 및 국내 판매
19	각종 화장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20	주거용 아파트/콘도의 개발, 분양 및 임대
21	국내 여행 서비스
22	해외 병원에 이송을 위한 환자 이동 에이전시

자료: 2019 미얀마 경영지원 세미나

□ 협작 투자 추진 시 주요 쟁점 사항

○ 자본금, 지분비율 및 출자

- 현금/현물 출자 금액 및 시기에 대해 정함
- 미얀마의 경우 파트너사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출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자 지분비율에 대해 협의 필요

○ 사업의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

- 양 당사자의 역할 특정 및 관련 비용의 부담을 정함

○ 회사의 운영

-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주총회의 경우, 일반적인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안과 특별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의 구분 필요
- 이사회에 경우 과반수 결의가 일반적이지만, 사전 동의권, 특별결의 요건 등을 포함 가능

○ 배당

- 통상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짐
- 소액투자자의 경우 배당에 대한 유보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배당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필요

○ 설립 전 비용

- 미얀마의 경우 회사법에서 설립 전 비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설립 전 비용에 대해 보전받는 항목 추가 가능

○ 지분의 양도

- 소수의 주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에, 파트너 변경은 사업 진행 여부의 매우 중요한 부분
- 따라서, 지분 양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 가능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분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동의 하에서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상대방이 매각하는 거래에 함께 참여, 강제로 상대방을 끌어들이 거래할 수 있는 조건 사용 가능
- 또한, 일정 기간의 경과 또는 특정 조건이 성취될 경우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가격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상대방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설정 가능

○ 의견 충돌 시의 해결방법

- 합작 투자자 간 의견 충돌 시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어 장기간의 관계 경색으로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 소위 교착상태(Deadlock)를 대비하는 조항 필요

○ 계약의 해지

- 예정된 합작기간이 경과하거나, 합작기간 내에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작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계약 해지에 따른 효과는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지분 처분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청산

- 청산은 통상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합작계약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다만 법에 정해진 방식 이외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청산의 절차, 잔여재산 분배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2018년 10월 '20개년 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MIPP)을 발표
- 2018년 11월 국내외 투자자의 대미얀마 투자 단일 창구 역할을 담당할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를 신설
- 양곤시 지방정부(Yangon Region Government, YRG)는 무주택 시민을 위한 2천여 채의 저가 임대 아파트 공급 프로젝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 건설부와 YCDC가 해당 토지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며, 저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무상 임대 방안을 검토 중
 - 외국인 투자자는 15~20년간 장기 주택 할부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밝힘
 - ADB 통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무허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10만여 채의 아파트가 필요

□ 회사(외국법인, 합작법인 및 지사/대표사무소)의 설립 절차 및 단계별 필요서류



자료: 미얀마 사업진출을 위한 외국법인의 설립, 우리회계법인

그림 4-1 회사설립 절차도

표 4-3 외국 법인의 설립 절차와 단계별 필요서류

단계		내용
1단계	상세업무	DICA 또는 DICA 웹페이지로부터 회사명 확인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
	필요서류	Name-check form(1,000 짜트)
2단계	상세업무	DICA 또는 DICA 웹페이지로부터 회사 등록 서류 양식을 입수
	필요서류	1. DICA로부터 입수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tion cover letter • Declaration of registration •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form • Declaration of Legal Version • Certificate of Translation • Directors details • Memorandum of Association 2.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s of Association • Application Form for Permit • Statement of company objectives & Undertaking not to conduct trading activities • Copy of passport of shareholder (if an individual) or copy of directors' resolution (if a company) • Copy of passport of foreign directors or copy of N.R.C for local directors

3단계	상세업무	원스탑서비스(OSS) 또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
	필요서류	-
4단계	상세업무	DICA에 서명된 회사등록서류를 제출
	필요서류	제2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에 회사가 서명
5단계	상세업무	OSS에 등록비를 납부(50만 짜트)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tter regarding permit conditions issued by DICA • "Conditions letter" issued by DICA • Payment acceptance letter issued by OSS
6단계	상세업무	DICA 임시 설립 증명서 (incorporate certificate)와 영업허가증 (Permit to trade)을 접수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CA가 발행하는 임시 설립 증명서 • DICA가 발행하는 임시 영업(trade) 허가증
7단계	상세업무	<p>법정 최소 자본금의 50% 이상 불입 및 기타 자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업종 : 5만 불의 50% 이상 - 기타 업종 : 15만 불의 50% 이상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자본금의 불입을 증명하는 하기 위한 Credit Advice form 을 DICA 에 제출 • 회사가 서명한 "Conditions letter"를 DICA에 제출
8단계	상세업무	등록할 사무소의 주소에 대한 확인 (회사 등록 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할 회사의 주소에 대한 확인 요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지역(township) 사무소로부터 받은 주소 확인서
9단계	상세업무	DICA로부터 최종 설립 증명서 및 허가증의 접수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설립 증명서 • 최종 영업 허가증

자료: 미얀마 사업진출을 위한 외국법인의 설립, 우리회계법인

표 4-4 미얀마 지사/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단계별 필요서류

단계	내용	
1단계	상세업무	DICA 또는 DICA 웹페이지로부터 지사/대표 사무소 등록 서류 양식을 입수
	필요서류	<p>1. DICA 로부터 입수할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tion cover letter • Declaration of registration •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form • Declaration of Legal Version • Certificate of Translation • Authorized persons details • Application Form for Permit • Statement of company objectives & Undertaking not to conduct trading activities

		2.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y of directors' resolution applicant company • List of directors of applicant company • Copy of passport of N.R.C of authorized person •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of applicant company (영어 및 미얀마어)* • Annual report 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applicant company for previous two years* • Appointment letter/Power of attorney for authorised persons* <p>* 이 서류들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국의 관계 공무원 및 미얀마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p>
2단계	상세업무	DICA 에 서명된 회사등록서류를 제출
	필요서류	제2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에 회사가 서명
3단계	상세업무	원스탑서비스(OSS) 또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
	필요서류	-
4단계	상세업무	OSS에 등록비를 납부(50만 짜트)
	필요서류	Letter regarding permit conditions issued by D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itions letter" issued by DICA • Payment acceptance letter issued by OSS
5단계	상세업무	DICA 임시 설립 증명서 (incorporate certificate)와 영업허가증(Permit to trade)을 접수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CA 가 발행하는 임시 설립 증명서 • DICA 가 발행하는 임시 영업(trade) 허가증
6단계	상세업무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 이상 불입 및 기타 자료 제출 - 서비스 업종 : 5 만불의 50% 이상 - 기타 업종 : 15 만불의 50% 이상
	필요서류	등록할 사무소의 주소에 대한 확인 (회사 등록 후 1개월 이내)
7단계	상세업무	등록할 사무소의 주소에 대한 확인 (회사 등록 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할 회사의 주소에 대한 확인 요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지역(township) 사무소로부터 받은 주소 확인서
8단계	상세업무	DICA 로부터 최종 설립 증명서 및 허가증의 접수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설립 증명서 • 최종 영업 허가증

자료: 미얀마 사업진출을 위한 외국법인의 설립, 우리회계법인

표 4-5 미얀마 법인의 설립 절차와 단계별 필요서류

단계		내용
1단계	상세업무	DICA 또는 DICA 웹페이지로부터 회사명 확인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
	필요서류	Name-check form(1,000 짜트)
2단계	상세업무	DICA에 이사(Director)들 각각의 신분증 관련 서류의 제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y of national registration card • Township reference letter • Police reference letter
3단계	상세업무	DICA 또는 DICA 웹페이지로부터 회사 등록 서류 양식을 입수(5,100 짜트)
	필요서류	DICA로부터 입수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tion cover letter • Declaration of registration • Situation of registered office form • Statement of company objectives • Directors details • Memorandum of Association • Articles of Association
4단계	상세업무	원스탑서비스(OSS) 또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
	필요서류	-
5단계	상세업무	DICA에 서명된 회사등록서류 제출
	필요서류	제2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에 회사가 서명
6단계	상세업무	OSS에 등록비를 납부 (50만 짜트)
	필요서류	Payment acceptance letter issued by OSS
7단계	상세업무	회사명의 은행 계좌의 개설 후 DICA 에 은행 잔고증명을 제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tter from DICA for abnk account opening • Bank Statement of new bank account (최소 납입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8단계	상세업무	등록할 사무소의 주소에 대한 확인 (회사 등록 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할 회사의 주소에 대한 확인 요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지역(township) 사무소로부터 받은 주소 확인서
9단계	상세업무	DICA로부터 최종 설립 증명서
	필요서류	최종 설립 증명서

자료: 미얀마 사업진출을 위한 외국법인의 설립, 우리회계법인

라. 금융시장

□ 기획재정부 금융규제국, 금융 포용성* 로드맵 시행 예정

- 금융규제국은 은행 및 보험 부문 자유화에 이어 7월 금융 포용성 로드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로드맵 작성은 완료되었고 내각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될 예정
- 유엔 자본개발기금(UNCDF)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로드맵은 2022년까지 미얀마 금융부문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 포용성 비율은 2018년 48%에서 2022년 60%까지 증가시킬 계획
- 이 로드맵은 수요, 공급 및 규제 등 3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접근성, 이용 및 금융 서비스 품질 개선 향상을 도모함
- 국가 금융 포용성 전략 및 실행계획 지원,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한 능력배양 함양,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혁신 촉진, 금융교육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실행 과제 선정

* 금융포용성: 금융소외 계층으로 하여금 저축,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으로 편입시키는 것

□ 2020/2021 회계연도 재정적자 7조 짜트 전망

- 원민 대통령은 2019년 6월 18일 국가 계획위원회와 금융 위원회의 미팅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차기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7조 짜트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월드뱅크와 IMF의 권고에 따라 2018/201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5% 이하로 유지해 왔으나, 2020년에는 5.9%로 증가할 전망

□ 미얀마, 자금 세탁 감시국 리스트 재등재 우려

- UN 마약범죄 사무국(UNODC) 자문관은 미얀마 정부의 자금 세탁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국제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 명단에 재등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2020년 미얀마가 FATF(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그레이 리스트(Grey list, 관찰대상국)에 재등재될 경우,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미국의 금융제재 재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이번 조사는 올 10월 종료되며, 미얀마의 고위험국*(high risk) 재등재 여부는 2020년 2월 결정 예정
 - * 그레이 리스트(전략적 취약 국가 목록)와 블랙리스트(실행 계획이 전혀 없는 국가 목록)에 등재된 국가들을 의미
- FATF는 고위험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 교류 시 실사나 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 재등재는 외국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미얀마에서 사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을 의미

라. 기타사항

□ 미얀마 경쟁위원회 설립

- 2018년 10월 연방정부는 위원장(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11명 위원의 경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정식 설립 행사를 개최
- 경쟁위원회의 역할로는 효과적인 법률 실행 보장, 교육 프로그램 실시, 법률 위반사항 공개 및 제재 등이 있음
- 한편, 경쟁위원회 멤버 11명 중 6명이 정부 공무원이고 한 명만 민간 경제학자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경쟁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경쟁법이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불공정한 경쟁 예방 및 독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

□ 미얀마 비즈니스 환경지수(myanmar business environment index, MBEI) 발표

- 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절실히 필요
- 응답자의 64%는 정부가 토지 분양에 있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44.6%는 대출 시에도 특정 기업 선호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50% 이상이 숙련공, 회계사, 감독관, 관리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책임자의 경우 임금이 너무 높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 응답자의 51%가 미얀마 교통 인프라와 전력공급 부족에 불만을 표시 하였으나, 특정 지역에서의 통신 및 인터넷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 노무관리제도

- 노동분쟁조정법(Settlement of Labour Dispute Law, SLDL)으로의 개정
 - 동 법안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 분쟁을 이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 하도록 한 법안임
 - SLDL은 사업장에 설치된 직장조정위원회(WCC, 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조정을 시작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위 조직으로 이관 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임
 - * 직장조정위원회(Workplace Coordinating Committee, WCC → 타운십 조정기구 (Township Conciliation Body, TCB) → 양곤지방 중재기구(Arbitration Body, AB) → 국가중재위원회(Arbitration Council, AC) 순으로 감
 -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주 대표 2인과 근로자 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WCC를 구성해야 하지만, WCC를 구성한 사업장은 3%에 불과함
-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 적극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분쟁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따르면 2019년 1월에만 100여 개 이상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시위가 발생함



자료: MYANMAR TIMES(좌), Frontier MYANMAR(우)

■ 그림 4-2 ■ 미얀마 노동시위 현장

2. 주요 공여기관 활동 현황

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 일본은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의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전략적 지원부터 도로(22개) 및 다리(15개) 건설 및 철도(2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교통 분야 주요 공여국으로 자리매김
 - * 양곤-만달레이 철도개보수 사업(유상/1억 9천만 달러), 1·2차 땔라와 인프라 개발사업, 양곤 순환열차 개선 사업(유상/2억 1만 달러), 동서 경제회랑 개발사업(3개 다리 재건설/유상/2억 8천만 달러), 라카인주 도로 건설·보수 장비 개선사업(무상/7백만 달러) 등 진행
- JICA는 미얀마 에너지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지원하는 공여 기관으로, 전력 송전망 개선 및 땔라와 경제구역 집중 전력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 * 국가전력망 개선사업 1·2차(National Power Transmission Network Development Project Phase I & II / 2015-2020, 유상/각 2억 9백만 달러, 3억 5천만 달러), 땔라와 전력 인프라 개발 사업(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in Thilawa Area Phase I / 양곤 전력 송전 개선 사업(Power Distribution Improvement Project in Yangon Phase I / 2015-2019, 유상/5천 2백만 달러) 등을 지원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 미얀마의 농촌개발과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5대 개발 과제와 3대 중점요소를 진단하고, 총예산 7천 5백만 불 규모로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관개수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2016년까지 연장한 2012-2014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있어 3대 주요 과제 중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명시한 바 있으며, ‘아세안 연결성(ASEAN Connectivity)’ 강화라는 큰 전략적 차원에서 ‘메콩 유역 동서 회랑 Eindu-Kawkareik 도로 개선 사업(유상/1억 달러)’ 및 ‘제3차 메콩강 유역 회랑 마을 개발 사업(유상/8천 3백만 달러)’ 등을 통해 동-서 경제회랑 및 중축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
-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력송전망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15천 만 달러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전력송전망 개선사업(2013-2015)’을 통해 전력 송전망 개선 투자계획 및 사전조사 지원 및 8천만 달러 유상지원을 통해 Thida-Thaketa-Kyaikasan 구간의 송전망 변전소 등을 건축 지원 중

다. 세계은행(WB)

- 세계은행은 총예산 14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로 ‘미얀마 전력 사업(2013-2017)’을 통해 전력 플랜트 구축 지원 및 40천만 달러의 유상지원인 ‘국가 전력화사업(2015-2020)’을 통해 전력 그리드 확장 등을 지원하고 있음

라. 다자신탁기금

- 생계 및 식량 안보와 농촌개발목적의 12개국 다자신탁기금 프로그램(2010-2018)이며,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기금관리를 담당함
- 총 76개의 농업 및 농촌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48개 집행 파트너에 의해 수행 중이거나 완료됨
 - * 델타지역(미곡 가치사슬 강화 및 소액금융), 건조지역(관개), 산간지역(소수민족 생계 강화 및 농민교육), 해안 지역(물관리, 마을금고), 지식과 혁신(농민 지식 증대를 위한 농지, 종자 개선, 미곡 생산성 향상 관련 기술협력 등),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향상

마. 국제농업개발기금

- Fostering Agricultural Revitalization in Myanmar(FARM) 사업을 (2,780만 달러/2014-2019) 진행 중이며, △주민참여형 관개시스템 운영관리, △참여적 방식의 농지개발, △소액금융 창업, △여성, 소수종족 우대, △역량개발 후 권한 위임, 주민참여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됨

3. 국내·외 진출사례

가. 국내 진출사례

□ 환경산업 진출사례

- [KOICA] 에야와디 델타지역 농업 및 관개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얀마 최대 곡창지역인 에야와디 델타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라는 목표하에 ‘미얀마 에야와디 델타 지역 농업 및 관개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해당 사업은 수자원 분야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수자원 분야의 한국기업들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① 미얀마 만달레이 소재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 발주기관: 미얀마 만달레이시
 - 수행기업명: (주)하나티이씨
 - 사업범위: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 및 발전 시스템 설치
 - 사업재원: 건설·운영·양도(BOT) 방식 사업
 - 타당성조사 기간: 2019.5.15.- 2019.12.31.(7개월)
 - ② 미얀마 고효율 스토브 보급 CDM 사업
 - 수행기업명: (주)에코아이
 - 타당성조사 기간: 2019.8.29.- 2020.5.31.(10개월)
 - ③ 미얀마 야다나본 신도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
 - 수행기업명: (주)건화, (주)경동엔지니어링
 - 타당성조사 기간: 2018.5.10.- 2019.7.31.(15개월)
 - ④ 미얀마 양곤시 Hlaing Thar Yar 타운십 상수공급시설 건설사업
 - 수행기업명: (주)유신, (주)도화엔지니어링, SK건설
 - 타당성조사 기간: 2012.8.1.- 2013.1.31.(6개월)
 - ⑤ 미얀마 만달레이시 하수처리장 및 배수시스템 개선사업
 - 수행기업명: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타당성조사 기간: 2013.10.1.- 2014.8.31.(11개월)
 - ⑥ 미얀마 양곤시 테인빈(HTEIN BIN) 최종매립장(FDS) 매립가스 발전사업
 - 수행기업명: 송실종합건설(주), 벽산엔지니어링(주)
 - 타당성조사 기간: 2015.10.8.- 2016.3.31.(6개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목 적: 미얀마의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협력사업을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환경협력 기반 구축
 - 대상지역: 미얀마 양곤시 및 주변 지역
 - 사업내용: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추진체계: 환경부가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 미얀마의 협의 주체는 미얀마 환경보전산림부와 YCDC 시장 이하 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서울이니셔티브(SI) 네트워크 사업
 - 사업명: 미안마 만달레이시 병원성폐기물 소각시설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선 사전타당성 조사
 - 사업기간: 2017.5.19. - 2018.3.30.
 - 주요 사업내용
 - 만달레이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 및 관리계획 및 가이드 라인을 마련
 - 의료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방안으로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 소요예산: 109,703천원
 -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대표사), 벽산엔지니어링(주), 한라오엠에스(주)
 - 준공일자: 2018.3.30.
- [한국수자원공사] 에야와디강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명: 에야와디강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기간: 2013 - 2014
 - 주요 사업 내용
 - ① 기초자료 조사
 - 유역 및 하천 현황 조사
 - 수자원 특성
 - 관련 계획 검토
 - ② 종합분석
 - 수자원 부존량 산정
 -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 하천관리유량 산정
 - 유역 물수지 분석
 - ③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 기본방향 설정
 - 홍수방어계획
 - 하도 및 내륙 주운 계획

④ 투자계획 수립

- 소요재원
- 경제성 분석
- 투자계획

○ [포스코 인터내셔널] 라카인 주 마나웅 섬 태양광 발전시스템

- 발전소 개요

- 미얀마 전력에너지부와 라카인 주 정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트너십으로 진행
- 발전용량 0.5MW 규모, 1,411개 솔라 패널, 2시간 용량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720개 배터리 및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0.5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쉐가스전 사업 CSR의 일환으로, 마나웅 소재 1,435 가구에 전력이 공급될 전망

- 1단계 사업에는 250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2단계 사업은 KOICA의 지원으로 진행될 계획

○ [㈜케이디파워] 미얀마 농촌 불 밝히기 사업

- 2012년 한·미얀마 경제협력 포럼에서 GPS 로봇 솔라 제품 홍보를 진행하며, 미얀마 정부 측과 연결된 것이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됨
- 2012년 10월, KOTRA의 지원으로 칼롯, 오보곤, 땅뜨원지 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 기증
- 해당 발전설비는 3kW 발전규모로 이 지역 주민 2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임

□ 기타 진출사례

○ [수출입은행,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 수행] 한-미얀마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 배경 및 목적

- 양곤 야웅니핀 산업단지의 원활한 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한-미얀마 양국은 2013년 6월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경제인프라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2015년 8월 경제 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정책자문 사업을 통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구축사업을 발굴
- 상수도(취수시설, 정수장, 도수관로), 도로(4차선 확정), 전력(송전선로, 변전소) 시공 및 컨설팅 서비스
- 차관 한도: 61.8백만 불
- 완공 예상 시기: 2024년
- 입찰 예상 시기

표 4-6 한-미얀마 산업단지 입찰 예상 시기

이벤트	컨설턴트 입찰	컨설턴트 계약	본구매 입찰공고	본구매 계약
예상시기	'19년 4분기	'20년 1분기	'20년 4분기	'21년 1분기

자료: EDCF 국가별 입찰예정사업,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EDCF 사업 참여 방법

구 분	사업내용	발주자	사업 건당 발주규모
사업타당성조사 (F/S)	사업목적 및 필요성, 기본설계, 사업비 산정,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	EDCF	3~5억 원
컨설턴트 고용	상세설계, 입찰서류 작성, 사업관리, 시공관리 등	수원국 정부 (EDCF는 입찰 공정성을 관리)	20~30억 원
시공사(공급자) 선정	건설/시공, 자재공급 등		300~350억 원

자료: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용 설명회 자료, KOTRA

○ [포스코대우] 미얀마 가스전 사업

- 2000년부터 가스전 탐사를 시작해, '13년부터 상업생산 시작
- 1단계 개발에서는 미얀마 벙골만에 위치한 광구에서 쉘(Shew) 가스와 미야(Myra) 가스 시추를 위한 해상플랫폼과 파이프라인 설치, 2단계 개발에서는 쉘 가스전과 쉘퓨(Shwe Phyu) 가스전을 신규개발해 2021년부터 쉘 가스를, 2022년부터는 쉘퓨 가스를 각각 생산할 계획

○ [수출입은행] 미얀마 가스 수송망 효율화 증대사업

- 사업 대상: 1981년에 건설되어 미얀마 마그웨(Magwe) 지역의 냐웅빈(Nyaungbin)과 바고(Bago) 지역의 벨렛(Bellet)을 남북으로 잇는 228km의 마그웨-쉐타웅(Shwetaung) 가스 파이프라인
- 사업내용: 기존 노후 파이프라인을 철거 후 교체 및 신설하고 가스공급 관리소 2곳을 구축하여 남북 간 가스 수송을 원활하게 할 예정
- 기대효과: 해당 사업을 통해 가스 수송이 중단된 미얀마의 남북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복구한 후, 북부 가스전을 활용하여 국내 가스 공급량의 111%를 추가로 확보하고, 발전소, 비료공장 등 수요처의 생산량 증대 도모

□ 진출 실패사례

○ [한국환경공단] 매립가스 발전사업

- 사업명 : Land Fill Gas(LFG) 및 Solar를 이용한 전력 발전사업
- 대상지역 : 미얀마 양곤시 테인빈(HTEIN BIN)
- 사업비 : USD 70,000,000(약 700억원)
- 사업기간 : 36개월(운영기간 : 25년)
- 사업규모 : 총 3단계 20MWp(1단계-2MWp, 2단계-10MWp, 3단계-8MWp)
- 사업방식 : 민간투자 BOT(Build_Operate_Transfer) 방식
- 발주처 : YCDC

○ [차슨 인터내셔널-제야 어소시에이츠]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 사업개요
 -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차슨 인터내셔널(Chasson International)을 테인빈 쓰레기 하치장 '메탄 연료 발전 시설' 건설 프로젝트 시공사로, 로컬회사인 제야 어소시에이츠(Zeya & Associates)를 사우스 다곤 지역 소각로 건설 업체로 선정

- 문제 분석

- YCDC는 전력 단위당 구입가를 90짜트로 제시한 반면, 낙찰 회사들은 단위당 150~160 짜트 이하로는 수익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요율에 대한 YCDC와 업체 간 이견으로 무산
- 또한, 소각재 처리방안 등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가 결여되어 비난에 직면하기도 함

나. 국외 진출사례

□ [일본 JICA] Greater Yangon Master Plan 2040

- JICA는 2013년 9월, 용수 공급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총 19억 엔 (2013-2014년도 6,473만 엔, 2014-2015년도 2억 5,100만 엔, 2016-2017년도 15억 8,000만 엔을 배정)을 지원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4년 5월 1단계 사업을 시작
- 용수공급 사업이 완료되면 흘라잉 타운십을 포함한 양곤 서쪽 지역의 용수 부족 사정은 개선될 전망이다
- 라군핀(Lagunpyin) 용수공급 프로젝트는 양곤 동쪽 지역 및 띠라와 경제특구에 일일 4,000만 갤런(1,000만 갤런은 띠라와 경제특구, 나머지는 양곤 동쪽 지역에 할당)의 용수 공급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름
- 2017년 8월 포스코건설이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개 정수장 건설 사업을 낙찰받은 바 있음

□ [일본 JFE 엔지니어링] 양곤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 2015년 10월 YCDC는 미얀마 자연환경부의 전신인 환경보전산림부(MOECAF)와 일본 정부 간 맺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설계 시공 업체인 JFE 엔지니어링을 양곤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시공업체로 선정
- 양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YWTEP)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JCM*)의 일환으로 YCDC와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JCM: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선진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자금을 제공하고, 이 기술로 실현되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량을 일본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제도

- 양국은 일본 환경부가 총 프로젝트 비용 1,620만 달러 중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YCDC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은 미얀마 제1호 JCM 사업이며, 이 시설에서 하루 6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전되는 700kW중 300kW는 양곤 주민들에게 공급될 계획
 - 일본은 2020년부터 15년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 2,40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크레딧을 받게 될 전망
 -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MCDC 공무원 등 벤치마킹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음
- [일본 도와에코시스템] 띵라와 특별 경제구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립
- 양곤시에서 일본의 도와 에코시스템 주식회사는 미얀마 최초의 산업폐기물 처리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6월 1단계로 211ha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 매립장은 띵라와 특별 경제구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임
 - 향후 40~50년간 연 약 22,700톤을 처리할 수 있음
- [네덜란드] 피지타군(Pyigyitagun) 타운십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 미얀마 연방의회는 만달레이 피지타군(Pyigyitagun) 타운십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5,992만 유로의 네덜란드 융자 지원 계획을 승인(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ING 은행)하였으며,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10년 상환, 연간 이자율 2.3%임
 - 이 지역은 2018년 JICA 자금 지원으로 상수도 공급이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로 타운십 전체 30% 지역의 용수가 공급됨
 - 나머지 70%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해, 저수지와 연결된 정수장 건설 및 수도관 설치(13km), 소화전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DB 차관 프로젝트] 만달레이시 폐수처리장 건설

○ 차관 규모

- ADB 공여 차관: USD 6천만
- 도시기후변화회복신탁펀드(UCCRTF): USD 4백만

○ 실행기간: 7년(2016-2023년)

○ 공사내역

- 개입장치 및 펌프장
- 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75,000 m³/일)
- 3개 소공구 및 상품

□ [태국 Hydrotek Supreme Mandalay Co., Ltd.] 만달레이시 폐수처리장 건설

○ 처리 유형: 상향류 혐기성 슬러지 블랭킷 및 활성 슬러지 시스템

○ 프로젝트 시행: 50년 기한 BOT(Build-Operate-Transfer) 프로젝트

○ 처리 후 배출수 BOD: ≤ 50 mg/l

○ 투자비용: USD 1,040만

□ 진출 예정사업

○ [태국 PTTEP] 600MW 가스화력발전소 건설사업

- 태국 PTTEP(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는 계열사인 Global Power Synergy(GPSC)의 자금 지원을 받아 600MW 규모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
- 타당성 조사는 완료되었고 미얀마 정부에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
-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발전소 개발 및 운영은 GPSC가 담당하고, PTTEP는 가스 공급자로 역할이 구분될 것으로 밝혀짐
- PTTEP는 쏘티카(지분 80%), 예타군(19.3%), 야다나(25.5%), M3(80%), M11(100%), MD7(50%) 총 6개의 미얀마 육·해상 가스전에 투자

○ [미얀마-중국 컨소시엄] 짜옥푸 발전 프로젝트

- 미얀마 수프림 그룹(Supreme Group)과 중국 국영기업 시노하이드로 (Sino-hydro) 컨소시엄은 전력구매협정(PPA)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

- 라카인 주 짜욱푸에서 135MW 규모의 가스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1.8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쉘 가스전의 가스를 이용하여 라카인 주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
 - 컨소시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달러 환율 변화를 반영하여 짜트화로 전력 구매비용을 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태국 TTCL] LNG 프로젝트
- 태국 상장사인 TTCL Public Company Limited의 양곤지역 LNG 발전 프로젝트 사업비는 당 초 약 3.5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나 미얀마 항만공사(MPA)의 반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최근 6.2~6.4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힘
 - 당초 계획인 부유식 설비 설치 대신, 달라 타운쉽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24km 길이의 지하 가스관, 28km의 송전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발전 용량도 388MW로 증대
- [일본 후지타(Fujita)] 몽유와 폐기물처리 시설
- 사가잉 지역 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기업 후지타(Fujita)가 '19년 7월부터 몽유와 일원에 새로운 폐기물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
 - 일일 약 150톤의 쓰레기가 몽유와로 유입
 - 현재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3곳의 쓰레기 처리장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우려

II 진출전략 수립

1. SWOT 종합분석

가. SWOT 분석표

표 4-7 환경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미비로, 향후 지속적 수요 예상 ○ 한국의 긍정적 개발 협력 이미지 ○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거점 발전전략 실시 ○ 개발수요와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정치리스크 및 과도한 관료주의 ○ 중앙정부의 예산부족 등 열악한 산업 인프라 ○ 높은 토지·공장·사무실 임차료 ○ 미얀마 현지은행 거래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PPP 사업 규정 개정 및 민간기업 유치 확대 ○ 인프라 건설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변동 리스크 ○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 전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 재정 부족으로 인프라사업 연속성 부재 ○ 외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나. 강점 요인

-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미비로, 향후 지속적 수요 예상
 - 미얀마 정부는 기초인프라 강화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 측에서도 국가 기간산업 분야에 대해 한국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한국기업은 공적자금을 통하여 미얀마에 진출하는 편이며, 미얀마에서도 한국의 EDCF나 ODA 관련 프로젝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의 긍정적 개발 협력 이미지 구축, 문화적·역사적 유사성 공유
 - 미얀마 정부의 국가개발계획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추구하는 사람·평화·공동번영의 3P(People, Peace, Prosperity)와 유사
 - 미얀마는 몽고 반점으로 대표되는 북방계의 DNA를 갖고 있으며, 언어도 한국어와 유사한 언어 계통인 티벳·미얀마어계로 우리와 어순이 같고 조사도 사용하고 있음
 - 미얀마에도 한국의 ‘정(情)’에 해당하는 ‘땅요진’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연과 정을 중요시하고 있음
 - 문화적·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산업화에 있어 집권층과 경제발전 주도 세력은 한국이 걸어왔던 산업발전 모델을 선호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구축 발표
 - 미얀마 정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 정부의 원조자금으로 전기·상수·진입도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의 산업혁명 기대
 - LH공사는 동 산단 내 한국기업의 진출을 위해 ‘19.5.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한국기업의 미얀마 진출의 교두보 역할 기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 사업위치 : 미얀마 양곤주 야웅나핀 지역
- 사업면적 : 약 68만평(600acre)
- 사업비 : 약 1,311억 원
- 사업기간 : 2019-2024년
- 시행주체 : LH컨소시엄(LH40%, 글로벌세아 20%)과 미얀마정부(40%)가 공동으로 JV 설립추진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을 통한 거점 발전전략 실시
 - 땔라와, 다웨이, 짜옥푸 세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혜 제공

- 경제특구 내 원스탑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한 곳에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
 - * 경제특구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절차에 약 3개월 이상 소요
- '14.1월 경제특구법(SEZ Law)을 제정하여 각종 혜택 등을 명시
- 경제특구법은 미얀마 진출기업에게 여러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관심과 이해도가 낮음

〈경제특구법 주요 내용〉

12개의 장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투자가 의무 및 권리, 투자 인센티브, 금융 및 보험, 투자분쟁 해결, 토지이용 조건 등에 대해 규정

① 법인세

- 자유지역(Free Zone) 투자가 및 자유지역 비즈니스(Free Zone Business) 투자가는 영업개시 후 7년 동안 법인세 100% 면제, 그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진흥지역(Promotion Zone) 투자가 및 기타 경제지역 투자가는 영업개시 후 5년 동안 법인세 100% 면제, 그 후 5년간 법인세의 50% 면제

② 관세 및 기타 세금

- 경제특구개발자(Developer)는 인프라 및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기계장비, 중장비, 운송기기 및 자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 자유지역(Free Zone) 투자가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생산 장비 및 부품의 수입과 공장, 창고,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운송기기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세금 면제

③ 기타 내국세

- 경제특구에서 수출하는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내국세 면제

④ 토지사용

- 50년 토지 임대 가능 및 그 후 25년간 연장 운용 가능

□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보유

- 미얀마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0~110달러 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미얀마의 임금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정도인 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

다. 약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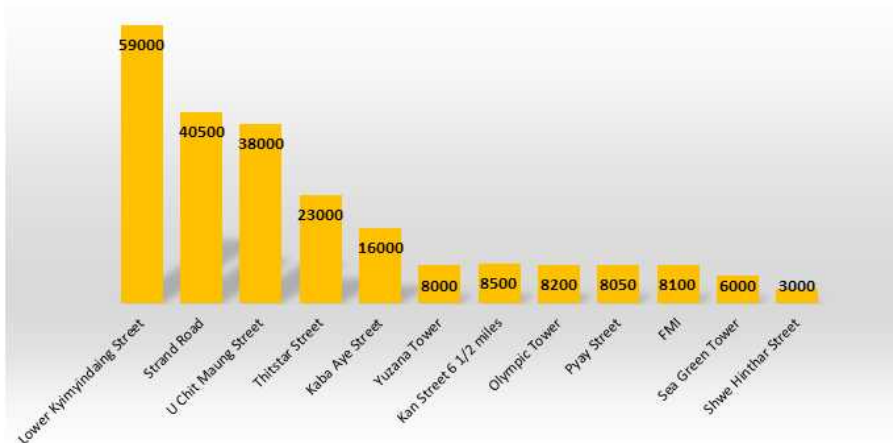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예산부족 등 열악한 산업 인프라

- 미얀마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사업환경지수 2020’에서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165위를 차지했으나, 여전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
- 또한, 환경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이 제안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전자, 기계 등 지속적으로 전기 공급을 해야 하는 산업 진출에는 걸림돌

□ 높은 토지·공장·사무실 임차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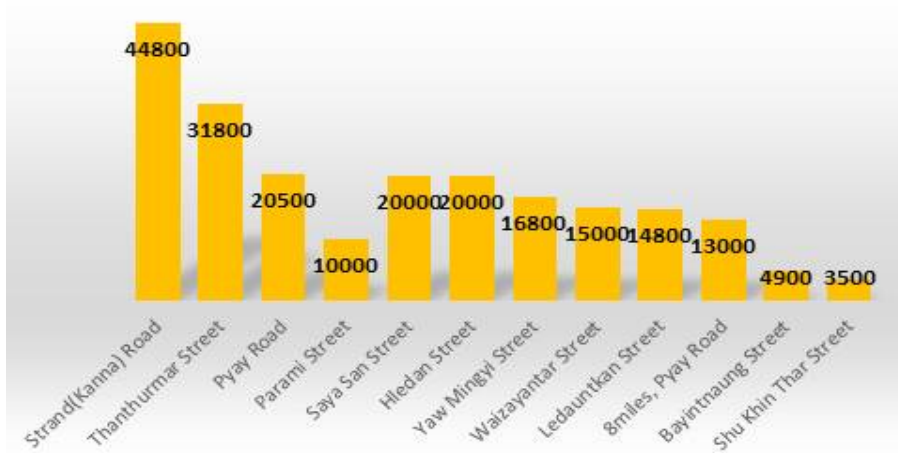
- 2011년 미얀마 개방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토지와 건물 임대료는 미얀마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약점 요인
- 과거 미얀마 정부는 네피도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정부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대거 민간에 매각, 그 결과 외국인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차료가 급등

단위: Kyat(MMK) per square-meter



자료: 미얀마 경제동향, 코트라

■ 그림 4-3 ■ 양곤 사무실 임대료



자료: Ibid

그림 4-4 양곤 상가 임대료

□ 미얀마 현지은행 거래의 어려움

○ 과도한 수수료

- 국내 이체도 금액의 0.125% 수수료 부과(3억짜트 이체 시 수수료만 375천 짜트)
- 해외 송금 시에도 금액의 0.125% 수수료 부과(30만 불 송금 시 수수료 377불 부과)
- 달러 현금 입금 시 입금액의 1% 수수료 부과(20만 불 입금 시 수수료 2천불 부과)

○ 불법 거래 위험

- 일부 국책은행 환전상 소개를 통한 불법 환전 중개
 - 중앙은행 등 관행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책은행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 중앙은행 규정을 무시
 - 환율 급등 시 제도권 금융기관의 달러 자금 이탈 및 불법 환전상의 시장 교란 문제의 심각성으로 대통령실에서 중앙은행에 규제를 지시함
 - ① 은행 이외에서의 달러 매매는 불법
 - ② 근거 자료 없는 달러의 일반 기업 간 매매는 외환거래법 위반 및 자금 세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

○ 대출/무역금융 사용의 어려움

- 현지 부동산 담보 대출만 취급, 외국인투자 기업 대출 사용 불가능(현지 담보 없음)
- 현지 통화 대출(짜트화)만 취급하며, 금리는 통상 13%임
- USANCE L/C* 등의 발행이 어렵고 L/C 발행 시 확인 추가 필요**
 - * 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 미얀마 은행의 영세함과 신용도가 낮아 수출상 L/C 활용이 어려움

○ 대외 결제 리스크

- 2016년 3월 미국 금융제재 완전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 자금 결제에 미온적임
- 해외 지점 등 결제망이 구축된 은행이 아닌 경우, 달러 결제에 시간과 수수료 소요가 큼
- 일부 미국계 은행은 아직 결제 시 각종 확인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묶어두고 있음

□ 낮은 자본주의 마인드와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자본주의를 지향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낮은 대외의존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사회간접자본(SOC)도 낙후되어 있거나 매우 열악함
- 국내외 기업이 기존 및 신규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라. **기회 요인**

□ 개발수요와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

- 미얀마는 초기 개도국으로 개발수요가 높고, 미개발 천연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6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인해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이 큼
-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지리적 강점으로 30억 인구의 경제활동에 거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을 적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거대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 미얀마는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동·서남아를 잇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도 보유하고 있음
- 이미 중국 본토와 인도양을 직접 잇는 도로와 항만의 개설에 ‘중국-미얀마-인도’, ‘태국-미얀마-인도’를 잇는 도로망이 건설 중으로, 세계최대의 인구집중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

마. 위협 요인

□ 환율변동 리스크

- 외환 시장 규모가 작아 외부 충격(국제 달러 시장 동요 등) 발생 시 투기 수요 발생 및 환율 과잉 반응 가능성이 큼
- 일례로 2018년 4-10월 기간 동안(4월 1\$=1,400짜트→9월 1\$=1,650 짜트) 큰 폭의 변동이 있었음

□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 EU는 2013년도부터 대 미얀마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적용하는 혜택 부여
 - * GSP: 미국이 특별히 지정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 반제품, 농산품 등에 대해 조건 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 관세
- 그러나, 2018년 로힝야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GSP 철회를 검토
 - 주미얀마 EU 대사 Mr. Kristian Schmidt는 VOA의 인터뷰에서 EU의 미얀마 경제제재에 대한 신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EU의 조사단이 미얀마에 방문해 미얀마 정부와 의논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외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

-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 시(국내 항공료, 골프장 그린피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를 징수함으로써 5~10배에 달하는 차별적 요금이 부과

2. 진출수요 및 전망

가. GDP에 따른 환경수요 전망

□ 한국-미얀마 GDP 비교 및 분석

- IMF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얀마의 GDP는 한국 1970년대의 GDP로 추정되며, 향후 5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1980년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표 4-8 | 미얀마 GDP 변화(2017-2024)

단위: USD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1,166	1,299.7	1,244.7	1,350.8	1,467.3	1,591.5	1,726.1	1,8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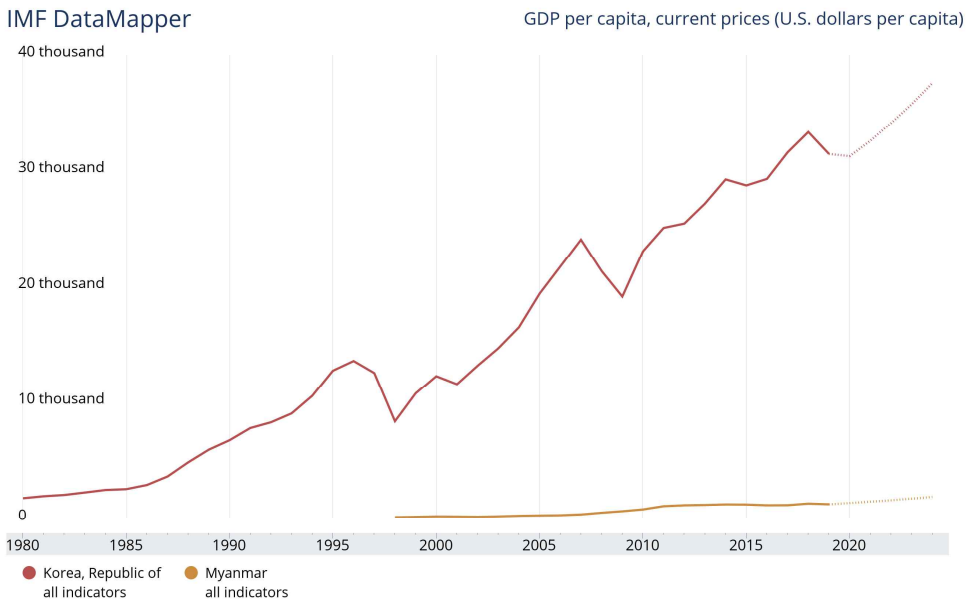
자료: IMF

표 4-9 | 한국 GDP 변화(1980-1987)

단위: USD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GDP	1,761	1,932.5	2,043.3	2,252.9	2,470	2,538.9	2,896.5	3,627.6

자료: IMF



©IMF, 2019, Source: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자료: IMF

그림 4-5 | 한국-미얀마 GDP 비교(1980-2020)

□ 1970-80년대 한국 환경정책 분석

- 1971년 공해방지를 위한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이전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첫 획득
- 환경기준, 배출기준설정,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공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선정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그러나, 경제개발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정책은 미약하게 머물고 있었고, 환경정책 집행은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
- 1980년대 후반에도 기업들의 규제준수는 여전히 낮은 상태였으며, 공장 폐수에 물을 타서 단속을 피해가거나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배출 등의 사례도 많았음
- 반면,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음
 - 1987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조사자 69%가 환경문제에 불만이라 응답하였고,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환경운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환경운동에 가담하겠다고 응답함
-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처리산업으로 정의됨

□ 1990년대 한국 환경정책 분석

-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촉진시키면서 대기 및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를 낳기 시작함
- 1990년대에는 쓰레기종량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 개선 부담금 등 경제적 유인책들이 많이 도입됨
- 또한, 1996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운영되어, 기업이 스스로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함
- 1990년대 이후 환경오염 사전예방·저감 및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까지 포함

□ 향후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수요 예측

- 미얀마는 환경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나, 환경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기술 간 격차가 매우 큼
- 생활 및 산업폐기물 처리기술, 폐수처리기술 등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 추이를 분석해볼 때, 2030-2040년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 90년대 수준의 환경산업 발전 추세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환경 인식 수준 향상 속도에 따라 그보다 빨리 환경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표 4-10 환경산업의 발전 단계별 특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환경규제	규제도입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규제강화
환경기술	저급기술	성숙단계의 저급기술	저,중급기술	중,고급기술	고급기술
주도분야	환경기초시설	사후처리분야	사후처리분야	오염사전 예방분야	환경창조분야
대상시장	내수시장	내수시장 활성화	내수시장정책 개도국 진출가능	개도국 진출 활성화	세계시장진출

자료: 미래산업 전략

3. 종합 진출전략

-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지원과제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진출 장려
 - 정부 프로젝트 또는 ODA 사업으로 우선 진출하여,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향후 5년에 걸쳐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
 - 민간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국기업은 공적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 및 진행을 통해 참여하는 편이 많으며 미얀마에서도 한국의 EDCF나 ODA사업 관련 프로젝트 사업 선호도가 높은 편임

□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한 진출

- 그동안 국영 기업 및 공장의 운영부실로 인한 적자폭 확대로 운영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현 미얀마 정부는 PPP를 통해 일부 중요 국영 기업과 공장의 회생을 도모
- 2019년 1월 말 'Invest Myanmar 2019'에서 국가 중요 프로젝트(전력 보급, 도로 건설 등)를 PPP로 시행하고 해당 프로젝트들을 'Project Bank'에 등록하여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책을 발표
- PPP에 관한 별도 법규는 없지만, 수지 국가 고문과 원민 대통령이 수차례 대내외 매체들을 통해 모든 중요 프로젝트들이 PPP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향후 미얀마의 중요 프로젝트들은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에 준거하여 모두 PPP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자료: Project Bank

■ 그림 4-6 ■ 미얀마 Project Bank 내 프로젝트 목록

□ 정부 기관 및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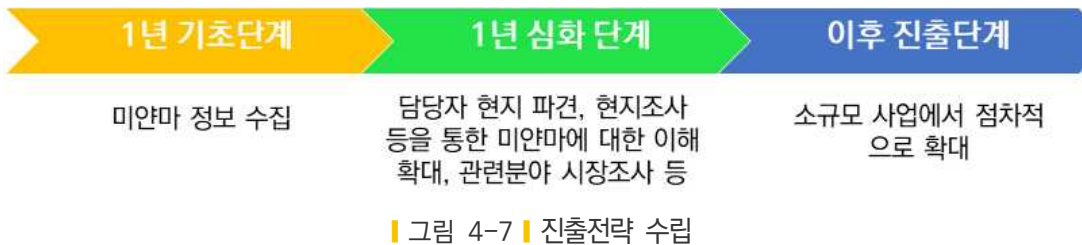
- 환경 중앙부처인 자연환경부(MONREC)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승인 담당 부서로서 긴밀한 관계유지 필요

□ 합작법인 설립 추천

- 기업의 단독진출은 위험성이 높으며,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것을 추천
- 그러나, 미얀마에는 기업DB 및 신용DB가 존재하지 않아, 협력기업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직접 접촉하거나 주변 평판을 듣는 등의 방법 외에는 레퍼런스 체크가 어려움

□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한 진출전략 필요

- 미얀마는 아직 환경산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1년 기초단계, 1년 심화 단계, 이후 진출단계 등 세분화하여 진출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3대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을 통한 진출

- 미얀마에서 추진하는 3대 SEZ 프로젝트
 -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짜옥퓨(Kyauk Phyu), 다웨이(Dawei), 띠라와(Tilawa)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 개발을 추진해 왔음
 -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띠라와 SEZ는 양곤시로부터 남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로 이동 시 약 50~55분이 소요되고 인근에 미얀마 수출입 물동량의 85%를 차지하는 띠라와 항구가 위치
 -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당초 경제특구 조성사업은 국제입찰을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수정되어 일본 컨소시엄(JICA+미쓰비시상사, 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 등 3개 상사)에서 사업권을 취득

○ 띨라와(Tilawa) SEZ

- 띨라와 SEZ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미얀마와 일본 간의 JV(Joint Venture) 협약(51:49)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됨
- 2014년 1월, 2,400헥타르의 부지 착공을 시작했고 2015년 중순에 Class A 지역 (396 헥타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1차 임대 입찰을 함

○ 다웨이(Dawei) SEZ

- 다웨이(Dawei) 프로젝트는 2006년에 추진되었으며, 위치는 태국 방콕 으로부터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
- 태국의 미얀마 진출 교두보 확보와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태국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물류기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에서 추진됨
- 다웨이 프로젝트 추진은 ITD사(The Italian-Thai Development)가 당초 추진했으나, 자금 확보에 실패
 - 2008년 ITD사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공업지역 개발에 60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유럽의 재정위기로 첫 단계인 인프라 자금 85억 달러 유치에 실패함
- 그 이후 태국 정부 주도로 다웨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미얀마 정부는 당초 시행사인 ITD의 역할을 제한하고 항구, 태국 도로연결 산업, 부동산 사업, 전기, 물 공급, 통신 및 철도 연결 등 각 사업으로 나눠 7개의 유동화 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
- 당초 다웨이 프로젝트 추진 초기단계에는 14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으나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5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되었고, 현재는 총 3,000천억에서 4,000천억 달러가 투자 금액으로 요구되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태국과 미얀마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은 현재 띨라와(Tilawa)지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였으나, 곧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짜옥퓨(Kyauk Phyu) SEZ

- 짜옥퓨 지역은 작게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를 잇는 라카인주에 위치한 거점 지역, 크게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짜옥류 SEZ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총면적은 75km²이며 1단계(Phase 1)로 19km² 개발될 예정임
- 1단계(Phase1) 19km² 개발 구역 내에는 2.46km²의 항구, 10km²의 산업단지, 5km²의 주거 지역, 나머지 2.05km²에는 공항, 도로, 발전, 하수처리 등 인프라 발달 계획시설이 들어설 예정
-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토지, 인력 등 발전하기 위한 우수한 사업 환경 및 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수출 및 수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그웨이-짜옥류까지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임

○ SEZ의 진출방향

- 띨라와 경제특구는 오폐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기존에 봉제 제조업 분야에서 염색, 가죽제조 공장 등 환경적 규제에 걸렸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제특구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경제특구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내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음

Ⅲ 결론

- 미얀마는 폐수배출시설 미운영, 폐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환경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환경문제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그에 반해, 유엔개발계획(UNDP),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선진국 수준의 매우 높은 환경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환경규제와 기업 인식 간의 괴리가 심함
- 또한,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환경설비 수요 등 투자 기회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가 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임
- 향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개발 등 양국의 협력이 기대되는 만큼 ODA 및 정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얀마 진출을 노려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미얀마의 환경산업은 아직 매우 초기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연환경부(MONREC) 등 정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미얀마 정부와 환경기관들의 정책 방향을 먼저 검토한 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로컬 기업과의 기술 제휴 혹은 합작 등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참고문헌 및 부록

1. 참고문헌
2. 부록
3. 미얀마 컨택포인트 종합

I 참고문헌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20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얀마 양곤 출장자료 / 2018 / KOTRA
- 미얀마의 新경제정책(수지노믹스)과 한국기업 시사점 / 2016 / 포스코경영연구원
- 미얀마 수피 정부의 경제개혁 2년 평가와 전망 / 201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미얀마의 물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 20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얀마, 물산업 진출전략 / 2018 / KEITI
- 세계농업 2018.10월호 / 20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얀마의 교통체증 / 2016 / EMERiCs
- 아시아태양광지원사업 2015 아시아 국가별 환경사업 분석서(미얀마) / 2015 / 환경재단
- 미얀마, 정수기 산업동향 / 2014 / 베한타임즈, 고성민(양곤무역관)
- 미얀마, 환경사업 분야 진출 관련 정책 및 시장 동향 / 2018 / KEITI
- 2019 미얀마 경영지원 세미나 / 2019 / KOCHAM.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양곤, 주미얀마 대한민국대사관
- MYANMAR BUSINESS REPORT ISSUE / 2019 / 미얀마 경영연구소
- 태동하는 미얀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 2018 / KOTRA 해외시장뉴스
- 한국기업의 미얀마 전력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2016 / 경희대학교
- Weekly KDB Report - 미얀마 경제특구의 특징과 시사점 / 2019 / KDB 산업은행
- 미얀마, 짜옥류 경제특구 프로젝트 동향 / 2013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얀마 투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 2018 / 아세안 토크
- 미얀마 국가협력전략 / 2016 / 관계부처 합동
- 사업분야별 진출 방법 및 법적 규제 / 2018 / 법무법인 리우
-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 2018 / 코스닥협회
- 2017 미얀마 진출전략 / 2016 / 양곤 무역관
-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 2008 / 한국정책학회
- KEITI-WB 보고서 / 201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II 부록

1. 비즈니스 유의사항

가. 금기사항

○ 악수는 오른손으로

- 미안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함
-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 줄 때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함

○ 정치적 얘기는 금물

-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탄쇄 장군이나 아우산 수지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물임
- 2016년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 관련 얘기가 예전보다 자유롭지만, 한국인이 아닌 이상 가능한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 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나.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공무원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방문사유, 방문인사

내역 등을 포함한 공식레터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함

- 기업인과는 1주 전에 전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음
-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약속 시간보다 15~30분 정도 지각이 빈번하며, 미팅 확정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잠정적으로 미팅을 잡는 업체 수가 많음
- 근무시간은 대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공무원의 경우 오후 4시면 퇴근하는 경우가 많음
- 경영총과의 약속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잡는 것이 좋음

○ (식사) 미안마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 써야 함

- 대부분의 미안마인이 종교 및 관습의 영향으로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또한 먹지 않음

-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이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당에서의 바이어 접대도 좋음
- (선물) 상담 성과 제고를 위해 바이어에게 전달할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가는 것이 좋지만, 고가의 선물 또는 기념품은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인사) 남성은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며, 여성과 인사할 때는 상대방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을 경우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함
 - 미얀마에는 성(Family Name)이 없으며 기혼남성에게 우(U), 미혼남성에게 꼬(KO), 기혼여성에게 도(DAW), 미혼여성에게 마(MA)를 이름 앞에 붙이며, 기혼여성인 'Ms. Zin Zin Khaing(진진 카잉)'일 경우도 '마 진진카잉' 이라고 호칭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음
- (복장) 미얀마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공식행사와 평상시 모두 론지에 슬리퍼를 착용을 즐겨 함
 - 연중 무더운 곳이기 때문에 양복바지에 반팔 와이셔츠, 노타이 차림이 무난하지만, 공무원을 만날 경우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음

다. 사업 추진방식

- 미얀마 공무원들은 사업 진행이 느리고 절차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 미얀마는 장관이 많지 않으며, Director General은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차관 이상급과 접촉해야 함

라. 계약체결 시 유의점

- 미얀마와 한국 산업발달 수준의 큰 격차로 인해 카탈로그만으로는 한국의 제품을 미얀마 바이어에게 이해시키기 쉽지 않음
 - 품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노트북을 이용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가격표는 'CIF Yangon' 기준으로 준비할 것
- 미얀마 기업인에게 명함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님
 - 대기업의 사무직, 영업직 직원은 대부분 명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업체는 사장을 제외하고는 명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더라도 조악한 경우가 많음

- 공무원의 경우에도 과장급 이하는 명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지 않을 때 재차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지 말 것
-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거래만을 인정함
 - L/C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고 외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무성에 제출해야 하고, L/C 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함
 - 은행에 수입대금을 100% 선예치하는 금융부담, 외환흐름 노출, 관세 등의 증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진 수출입에 있어 언더밸류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 경우 차액은 제3국 은행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게 됨
 - 미얀마에서의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인을 통한 환치기도 일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불법이며, 또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마. 참고사항

- (전문성 부족) 바이어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못하고 가능성 있는 어떤 분야의 제품이라도 취급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 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음
- (부정적 반응 회피) 식민지 및 군부 지배 영향으로 싫은 것과 미안한 것에 대해 표현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상담시 반응에 유의 필요
- (가격 인하, 제품변경 요청 빈번) 미얀마는 바이어 협상 시, 가격 인하 요구 및 할인을 위한 제품 사양(포장 디자인, 내부 장식, 볼륨 등) 변경 요구가 많음
- (끈기 필요) 상담 후 수입의사결정에 조급하지 않으며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한 상담전략 필요

Ⅲ 미얀마 컨택포인트 종합

구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재 외 공 관	대사관	한성수 참사관	☎ (+95)-1-527142~4 ✉ sshan18@mofa.go.kr	
	KOTRA	이희상 관창	☎ (+95)-1-9253346~50 ✉ hslee@kotra.or.kr	
	KOICA	이연수 소장	☎ (+95)-1-8500801, 8500803 ✉ yslee@koica.go.kr	
		강길범 부소장	☎ (+95)-1-8500801, 8500803 ✉ kanggb@koica.go.kr	
배도찬 코디네이터		☎ (+95)-1-8500801, 8500803 ✉ bestdochan@koica.go.kr		
현 지 정 부	자연환경부 (MONREC)	Sein Htoon Linn 부국장	☎ (+95)-67-431323 ✉ inn.ecd.myanmar@gmail.com	
		Min Maw 국장	☎ (+95)-9-425275361 ✉ mingmaforester@gmail.com	
	양곤도시개발위원회 (YCDC)	Aung Myint Maw 부수석 엔지니어	☎ (+95)-9-5187854 ✉ amMLEEycdc@gmail.com	
현 지 기 관	상공회의소 (UMFCCI)	Cho Thet 스태프	☎ (+95)-9-459720447 ✉ chothetz@gmail.com	전시회, 포럼 문의 등
	엔지니어링협회 (MES)	Soe Myint 사무총장	☎ (+95)-1-580620 ✉ sm260859new@gmail.com	소음·진동 모니터링 장비 등
	산업협회(MIA)	U Tin Hlaing 부회장	☎ (+95)-1-2314830 ✉ mparamitinhlaing@gmail.com	그린빌딩, 폐수처리 등
U Myint Than 전무이사		☎ (+95)-1-220456 ✉ myintthan@gmail.com	환경관리 계획(EMP)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 - 미안마

이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와 한국환경산업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주 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표전화 : 044-201-6704

홈페이지 : www.me.go.kr

한국환경산업협회

주 소 : (우)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
센트럴타워 3F 한국환경산업협회

대표전화 : 02-389-7284~6

홈페이지 : www.keia.kr

발행일 : 2019년 12월

| 이 책자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환경산업연합회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 (중림동 500) 센트럴타워 3층

Main 02-389-7284~6 Fax 02-389-7287

www.keia.kr